

청장년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 뉴저지연합교회 청장년부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박석만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Sean Seokman Park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FAMILY MINISTRY FOR YOUNG ADULTS**

**: A CASE STUDY OF KOREAN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Sean Seokman Park

Korean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Englewood, NJ

There was a time when it was a tradition for everyone to go to church on Sundays, study the Bible, and pray at school - a picture of old America. However, a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we live now, is completely different. Every church is losing its members. Ten years ago, when I worked at Fairmount UMC, only 25 people worshiped every Sunday in the main hall that could accommodate 500 people. This decrease in membership is not just a problem for the church; Christian faith in Western societies, including that of the United States, is becoming more and more obsolete. The church, like a sinking boat, forecasts a dark future.

There is a saying that a crisis is an opportunity. Turning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is our church's urgent task, and it should be our ministry to dedicate to God. As the influence of the church dwindles, the teachings of the Bible are becoming foreign to all generations. What should our church do to turn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Isn't

it a faith movement that begins in the most basic family? We need to restore the spirit of the Early Church, which started from the early days of church history and raised the warriors of faith that the world could not handle.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essence of the church by proposing a family ministry. The target audience is young adults of the Korean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and the whole family from the young generation is established as a small church. In this era where the secular world is sweeping away, we want to contribute to building a true Christian family that lives by faith.

This study presents programs such as Bible reading, religious education at the table, and other lectures and seminars that families who participate in family ministry can engage in for a year, so that they can practice them practically.

## 국문초록

### 청장년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 뉴저지연합교회 청장년부 사례를 중심으로

박석만

뉴저지연합교회, 잉글우드, 뉴저지

주일이면 누구나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던 것이 자연스러운 때가 있었다. 예전 미국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줄어가고 있다. 필자가 10년 전 시무했던 Fairmount UMC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에서 매 주일 25명의 인원이 예배를 드려왔다. 이러한 성도의 감소 현상은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낮은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교회는 가라앉는 배(Sinking boat)처럼 미래가 어둡다고 전망을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숙제이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가면서 모든 세대에게 성경의 가르침이 낮선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시작되는 신앙

운동이 아닐까? 교회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가정사역을 제안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한다. 대상은 뉴저지연합교회(KCCNJ) 청장년층으로 하여 젊은 세대부터 온 가족이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지면서 세속이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가정 사역에 참여한 가정들이 1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성경 통독과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그 밖의 강의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감사의 글	xi
제 I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방법	3
3. 연구 범위와 한계	4
제 II 장 사역에 대한 정의	6
1. 가정사역에 대한 정의	6
2. 가정사역의 의의	7
3. 성공적 청장년 사역에 대한 정의	9
제 III 장 청장년 세대 이해	12
1. 성경 속의 세대	12
2. 청장년은 누구인가?	15
3. 현재 청장년의 상황	16
제 IV 장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의 상황	19
1. 미국 내 한인 청장년의 상황	19
2. 고령화	27
3. 청장년층이 교회 이탈	30
제 V 장 청장년을 위한 가정사역	42
1. 성경적 가정 세우기	42

2. 가정의 의미 -----	46
3. 가정교회로서의 신앙교육 -----	50
제 VI 장 청장년 가정사역 세우기 준비 -----	57
1. 동기 부여 -----	57
2. 모집 및 실행 -----	61
3. 프로그램 준비 -----	62
제 VII 장 청장년 가정사역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계획 -----	69
1. 성경 통독 연간 계획 -----	69
2.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	86
3. 특별활동 -----	89
제 VIII 장 결    론 -----	110
1. 요약 및 평가 -----	110
2. 결론과 제언 -----	115
참고문헌 -----	117

## 표 목차

<표 1>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교회” 를 위한 설교 시리즈-----	59
<표 2> Weekly Bible Story Reading Schedule -----	73
<표 3> 매주 성경 이야기 읽기 표-----	76
<표 4> 아담과 하와-----	81
<표 5> 새 예루살렘-----	84
<표 6> 식탁에서의 가정 교회-----	88
<표 7> 가정사역을 위한 가정 컨퍼런스-----	99
<표 8> 질문 1 -----	105
<표 9> 질문 2 -----	106
<표 10> 질문 3 -----	106
<표 11> 질문 4 -----	107

## 그림 목차

<그림 1> 바른 정체성 세우기 세미나 포스터-----	60
<그림 2> BibleTelling Table of Contents -----	70
<그림 3> Adam and Eve -----	80
<그림 4> New Jerusalem -----	83
<그림 5> 마더와이즈 모임 -----	96
<그림 6> 마더와이즈 수료식 -----	97
<그림 7> 남미 대륙에 위치한 파라과이-----	100
<그림 8> 파라과이 현지 선교 현장 1 -----	101
<그림 9> 파라과이 현지 선교 현장 2 -----	101
<그림 10> 파라과이 센타니에 위치한 벤엘교회 교인들과 선교팀-----	102
<그림 11> 파라과이 선교 후 아순시온 공항-----	102
<그림 12> 파라과이 행정구역-----	103
<그림 13> 최윤영 선교사 부부와 벤엘교회-----	104

## 감사의 글

지난 3년간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과 더불어 목회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새로운 안목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부터 가르침을 주신 김영래 교수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을 쓰기에 앞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문을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매 학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님을 통해 내러포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뉴저지연합교회와 Farmingdale/West Grove UMC 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물질적, 영적 후원이 없었다면 학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들의 지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용기를 주고 섬겨준 아내 Jean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한없이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목회 사역에 불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드립니다.

2023. 3

박석만

## 제 I 장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문제제기(뉴저지연합교회의 청장년부 상황)

뉴저지연합교회(KCCNJ)에 부목사로 파송 받은 지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청장년 사역을 맡은 것은 그 후로 한참이나 지나 2년 전이다. 필자가 청장년 사역에 참여하기 전 그 사역은 몇 청장년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 왔고 담당 목회자가 없었다. 청장년 사역에 비전과 열정이 있는 몇 가정이 함께 모였지만 이내 그들의 사역은 힘을 잃고 말았다. 그 후로 청장년 사역을 필자가 맡게 되었다. 청장년 사역에 함께 하면서 이전의 리더들이 왜 이 사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역이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몇몇의 열정 있는 리더들과 다르게 청장년층의 대부분은 교회 사역 참여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았다. 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도 모임을 활성화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에 따라,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기 모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Covid-19) 팬데믹은 청장년 사역을 더욱 더 약화시켰다. 모든 대면 예배와 모임은 멈춰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청장년 사역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장년 사역에 대한 작은 불씨마저도 꺼져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존에 해왔던 교회 사역 전반에 대한 재조명을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은 교회에도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자극했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의 청장년 사역도 다시금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삶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청장년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민 교회 청장년 사역을 하면서 이민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청장년 사역이 약화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빨리 고령화되어 갈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민 한국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연령은 50대 이상이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장년은 전 세대의 부흥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대이다. 청장년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로 인해 주일학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청장년 사역의 부흥은 교회를 더욱 젊고 활기 있는 분위기로 바꿀 것이고 이들의 젊은 리더십은 속히 변해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교회는 이미 장년 세대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사역의 주체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안타깝지만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세대로 사역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장년은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을 가진 세대이기도 하다. 이제 청장년 세대가 다시 회복되어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활발하게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 미래가 밝은 교회, 또한 영과 진리로 모든 세대가 예배를

올려 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 일에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 2. 연구 방법

청장년 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 는 오랜 시간 필자의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젊은 층 이탈 현상은 한 가지의 원인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이번 연구를 위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이 청장년 사역의 위기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번째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들 앞에서 필자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든 사역면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결국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윤식, 최현식은 교회의 위기를 ‘상황의 변화’ 와 ‘교회다움의 상실’ 로 진단했다.<sup>1</sup>

‘교회다움’ 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필자는 교회다움은 교회의 초기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의 모습이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가정에서 교육되었으며, 건강한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성장하고

<sup>1</sup> 최윤식, 최현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117-118.

세계로 뻗어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년 사역의 부흥을 위해 각 가정에 ‘가정사역’을 세워가는 것으로 정하였다.

청장년의 사역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수적 부흥을 일시적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교회가 어떻게 청장년들의 가정이 가정 사역을 세워 갈지 지도하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정과 가정 사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현재 청장년들이 처한 상황과 도전에 대해서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 사역을 세워가는지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 범위와 한계

이 연구는 뉴저지연합교회(KCCNJ)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 내 모든 이민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미국 내 동북부 뉴욕 인근 뉴저지 주, 한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근방인 잉글우드(Englewood)에 위치해 있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잉글우드 주위의 도시들, 즉 포트리(Fort Lee), 팰리세이드 팍(Palisade Park), 테너플라이(Tenafly), 크레스킬(Cresskill) 등에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이 지역들에서 접근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

미국은 상당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남북이나 동서가 서로 언어의 억양과 문화도 차이가 존재한다. 어디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한인들에게도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교회에 대한 인식, 믿음에 대한 정의와 해석, 삶의 철학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만들어낸다. 이번 연구는

동북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중심이 되는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지고 있는 청장년층에 집중한다. 젊은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 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연구는 뉴저지연합교회(KCCNJ)를 중심으로 청장년 사역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청장년 사역이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들의 사역은 이번 연구에서 진단하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장년 사역에 대한 제안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도 실천할 수 있는 정보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도 될 것이다.

## 제 II 장

### 사역에 대한 정의

#### 1. 가정사역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가정 사역(Family Ministry)은 가족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사역을 일컫는다. 가정의 신앙이 자라고 발전하도록 돕는 사역으로 정의된다.<sup>2</sup> 가정사역에 대한 정의는 적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결혼 축복, 육아 교실, 은퇴 세미나,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를 가정사역이라 정의한다. 어떤 회중에서는 가정사역을 이웃을 위한 아웃리치(Neighbor outreach) 프로그램으로 여긴다.<sup>3</sup> 이는 이웃 가족들을 위한 사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정사역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Family)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의미하며 각자의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신앙운동을 의미한다. 교회가 주도하고 가족들이 참여하는 사역이 아니다. 교회는 각 가정이 가정사역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사역의 중심은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다. 이 사역에

---

<sup>2</sup> Steven Ackley, "What is Family Ministry," *Ministry Grid*, (2019), <https://leadership.lifeway.com/2019/04/03/what-is-family-ministry/#:~:text=Family%20ministry%20aims%20to%20develop%20disciple%2Dmaking%20disciples.&text=The%20aim%20is%20to%20grow,doing%20the%20same%20for%20others> (Accessed October 10, 2022).

<sup>3</sup> Diana R. Garland, *Family Minist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2), 113.

해당되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기초로 한다. 더불어, 부와 자녀,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도 포함한다. 현대인들의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인 가정과 달라지고 있다. 편부모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이 모두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청장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정 사역은 전통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다. 즉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다. 현재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 가족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가정의 정의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전통적인 해석에 기초한 가정을 중심으로 삼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이룬 결혼 가정과 그의 자녀들이 이번 연구에 해당되지만 다른 가족 형태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보편적 신앙 훈련을 제시하기에 누구든지 적용 가능할 것이다.

## 2. 가정 사역의 의의

가정은 교회의 기초이다. 진정한 신앙은 기독교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은 가정사역에 대한 많은 예를 보여 준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가정을 위한 사역은 교회 사역의 기초가 된다.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에서 참된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sup>4</sup>

---

<sup>4</sup> Andrew Lisa,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amily Ministry," *Charisma Leader*, (2014), <https://www.charismaleader.com/life/310-family-life/20778-stressing-the-importance-of-family-ministry> (Accessed March 4, 2023).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 교육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다. 필자는 교회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 신앙교육이 아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호성기는 『선교의 제 4 물결을 타라』라는 책에서 서구 교회의 해외 선교의 업적에 대해서 치하한다. 그들의 해외 선교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5</sup> 필자의 가문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국의 신앙의 1 세대이다. 서구 선교사의 헌신된 선교 활동으로 필자의 할머니께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결국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서구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매가 지금의 한국 교회임에 틀림없다. 호성기는 그들의 이러한 선교의 성공에 불구하고 서구교회가 자식 선교와 가정 선교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한다.<sup>6</sup> 지금의 미국 교회의 교인 구성원을 보면 그의 지적은 정확하다. 거의 대부분의 전통 교단(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의 주일 출석 교인들은 노인층이다.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리고 있다.

그는 이제는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기 전에 자기의 가정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가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자녀들과의 언어적, 문화적 간격이 커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를 하지

<sup>5</sup> 호성기, 『선교의 제 4 물결을 타라』 (서울: 국민일보, 2020), 25.

<sup>6</sup> Ibid.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sup>7</sup> 자녀들의 첫 번째 교사가 그의 부모들이다. 어린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입맛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 부모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sup>8</sup> 가정이 시급한 선교지가 되어 가고 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초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신실함이 교회에서의 신실함을 강화하고, 교회에서의 신실함이 가정에서의 신실함을 강화하기를 원하신다.<sup>9</sup>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작은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정립하여 가족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살아난다.

### 3. 성공적 청장년 사역에 대한 정의

글렌 데이먼은 그의 책, 『중, 소형 교회 성공 리더십』에서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을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사역을 교회에 모이는 교인 수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0</sup> 전적으로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 흔히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성공적인 교회로 인식하곤 한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많이 성도가 함께 모일 때 교회의 사역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교인이 많은 곳에 사역을 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교회는 많은 사역을

<sup>7</sup> Ibid., 29.

<sup>8</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40-41.

<sup>9</sup> David Sunday, "Embracing the Biblical Tension Between Family and Church Ministry," *The Gospel Coalition*, (2012),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embracing-the-biblical-tension-between-family-and-church-ministry/> (Accessed October 12, 2022).

<sup>10</sup> Glenn Daman, 『중,소형 교회 성공리더십』 김기현,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8-19.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성공적인 교회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와 그들의 사역이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모이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이 반드시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도 없다.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자.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의 모임이었다.<sup>11</sup> 초대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소수로 모였다. 초대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에 전념했고, 주의 사도인 바울과 한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르며, 교회의 생활과 선교에 성령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은 치유의 은혜를 누렸다.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였다.<sup>12</sup> 교회는 주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교적 열정이 강하였다. 초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들과 비교해서 수적으로 적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였다. 이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성공적인 교회란 성도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며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성공적인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3</sup>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장년 사역은 각 가정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교회 공동체인 뉴저지연합교회(KCCNJ)의 수적/영적 성장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의

<sup>11</sup> Theresa Doyle-Nelson, "House Churches in the New Testament," *Franciscan media*, (2018), <https://www.franciscanmedia.org/st-anthony-messenger/house-churches-in-the-new-testament/> (Accessed October 20, 2022).

<sup>12</sup> 사도행전 2:46.

<sup>13</sup> Daman, 『중,소형 교회 성공리더쉽』, 21-23.

모습이 실현될 때 그들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 성공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며 교회 공동체인 뉴저지연합교회(KCCNJ)와 지역 사회도 변화시켜 갈 것이다.

## 제 III 장

### 청장년 세대 이해

#### 1. 성경 속의 세대

‘세대 차이’<sup>14</sup>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세대가 나뉘지며 세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모든 세대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990-1945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이 전통주의자들(The Traditionalists)이다. 베이비붐 세대(The Baby Boomers)는 1900 에서 1964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그 뒤를 이어 X 세대(the Generation Xers)가 있다. 그들은 1965 과 1979 년 사이에 태어났다. 밀레니얼 세대(The Millennials)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1980 에서 1994 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끝으로 Z 세대(The Gen Z’ ers)가 있다. 1995 년과 2012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sup>15</sup>

존 마브리(John R. Mabry)는 그의 책, 『Faithful Generation』 서문에서 솔직한 고백을 한다. 그가 목회 현장에서 문화 충격(Cultural Shock)을 경험했다. 그 충격은 교인들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교인들과의

<sup>14</sup> 세대 차이(世代差異):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네이버사전).

<sup>15</sup> Hayim Herring, *Connecting Generations: Bridging the Boomer, Gen X, and Millennial Div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ix.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에게 다른 세대를 목회하는 것은 마치 미개척의 광야(Wild and unexplored place) 같은 곳이라 말했다.<sup>16</sup> 비록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대의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목회현장은 온 세대가 함께 하기에 세대에 대한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목회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는 세대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조병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세대들(Generations)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한다. 성경 속 고대사회에 보면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세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피지배민들에게 세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세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조병호는 그의 책,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각 세대를 이렇게 구분했다. 먼저는 ‘출애굽 세대’이다. 이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이다. 그들은 출애굽 후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대이다. 그 뒤를 이어 ‘만나 세대’로 이어진다. 이들은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부모들과는 다르게 율법을 배우고 용기 있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한 세대이다. 그들은 부모들과 다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만나 세대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소홀했다.<sup>17</sup> 그들의 자녀들이 사무엘 시대에 등장하는 ‘미스바 세대’이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였다. 그래서 이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sup>16</sup> John R. Mabry, *Faithful Generations: Effective Ministry across Generational lines*, (New York: Morehouse Publishing, 2013), xi.

<sup>17</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20), 107.

명명한 것이다. 이들은 사무엘에게 20 년동안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있었던 것이다.<sup>18</sup>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제건 세대’ 라고 한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70 년 포로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뜻인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한 세대이다.<sup>19</sup>

세대에 대한 특징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30 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던 제자 세대 ‘복음 1 세대’ 이다. 이들은 온갖 핍박에도 복음 전파한 세대이다. AD 64 년 로마 화재사건으로 복음의 1 세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온갖 핍박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2 세대들을 통해 전수되었다. 이들이 ‘복음 2 세대’ 들이다. 복음 2 세대들 또한 로마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복음 전파에 삶을 바쳤다. 요한의 요한 계시록이 이 복음 2 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sup>20</sup>

오늘날에도 그리고 성경 속 시대 속에도 세대는 이와 같이 나뉘지며 각 세대의 삶은 그들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세대는 나타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담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교회는 온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지상 명령을 받은 존재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교회는 먼저 각 세대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서로 다른 세대 간에 하나님의

---

<sup>18</sup> Ibid., 166.

<sup>19</sup> Ibid., 166.

<sup>20</sup> Ibid., 580.

나라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시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역해야 한다.<sup>21</sup>

## 2. 청장년은 누구인가?

"청장년"은 "청년"과 "장년"을 합친 용어로, 대개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청년"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기에 있는 사람<sup>22</sup> 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15세에서 29세까지로 정의한다.<sup>23</sup>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청년이라 정의한다. "장년"은 일생 중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인 시기로,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sup>24</sup> 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청장년"의 나이 범위는 40대 후반까지를 포함하며, 여전히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청장년층은 청소년기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이다. 이 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른 청년의 시기에 그들은 부모의 집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기에 변화의 시기에 불안정감과 불확실성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한다.<sup>25</sup> 이

<sup>21</sup> Hayim Herring, xii.

<sup>22</sup> "청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B2%AD%EB%85%84>, (Accessed September 5, 2022).

<sup>23</sup> "청년인구," 통계청,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222007267> (Accessed September 5, 2022).

<sup>24</sup> "장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E%A5%EB%85%84> (Accessed September 5, 2022).

<sup>25</sup> Jeffrey Jensen Arnett,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3.

시기에 이들은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낙관적인 태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이기도 하다.<sup>26</sup> 이 연령대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목표를 이루며,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큰 가능성과 기회를 갖고 있다. "청장년"이 되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대가 따르게 된다. 더 높은 직위나 책임을 맡게 되면서,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더 큰 압박과 기대에 직면하게 된다. 직업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청장년"은 20 대 후반부터 40 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가장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그에 상응하는 도전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목표를 이루는 큰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 3. 현재 청장년의 상황

2011년에 등장한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는, 현재 30-40대인 청장년 세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청장년들 누구나 자연스럽게 경험하던 연애, 결혼, 출산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sup>27</sup>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sup>26</sup> Richard M. Lerner and Laurence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3r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9), 3.

<sup>27</sup> “사설- 청년들 헬조선 이어 삼포 넘어 이제는 다포세대自嘲,” *경북탐 뉴스*, (2021).  
<https://www.ktn1.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99#:~:text=%EC%82%BC%ED%8F%AC%EC%84%B8%EB%8>

‘완포/전포 세대’ 라는 신조어로 발전되었다. 취업과 내 집 마련, 건강과 외모, 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음을 보여 준다.

과거에는 조부모/부모 세대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삶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은 현대 청장년들을 나약한 세대로 비판하기도 한다. 현대 청장년들이 직면한 상황은 기존 세대들이 경험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여러 가치 요인들이 현대 청장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대 청장년들은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 성별과 인종의 다양성 등을 중요시하며, 기존의 가치관과는 차별화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sup>28</sup>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하는데 익숙한 이 세대는 더욱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수용하며 변화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의 상승, 불안정한 일자리 시장, 그리고 저렴한 주택을 찾기 어려운 내 집 마련 문제는 현재 청장년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에 모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빚에서 큰 부채를 안고 있어 돈을 절약하거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 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sup>30</sup>

---

C%80(%E4%B8%89%E6%8A%9B%E4%B8%96%E4%BB%A3,%EC%A0%8A%EC%9D%80%20%EC%B2%AD%EB%85%84%EC%84%B8%EB%8C%80%EB%A5%BC%20%EB%A7%90%ED%95%9C%EB%8B%A4 (Accessed September 10, 2022).

<sup>28</sup> Ben Sales, “The Pew Study Cheat Sheet: 10 key Conclusions from the New Survey of American Jews,” *Jewish Telegraphic Agency*, (2021), <https://www.jta.org/2021/05/11/united-states/the-pew-study-cheat-sheet-10-key-conclusions-from-the-new-survey-of-american-jews> (Accessed November 2, 2022).

<sup>29</sup> Mark Deuze, *Media Work* (Cambridge: Polity Press, 2013), 233.

<sup>30</sup> 최효정, “고용개선? 청년실업률은 3개월 연속 10%대,” *조선비즈*, (2021),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2/QSUST3REFZAGXIWFF5UCYWXZRQ/](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2/QSUST3REFZAGXIWFF5UCYWXZRQ/) (Accessed March 4, 2023).

한국의 경우,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6%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은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장년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필자가 청년과 청장년으로 이루어진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2박3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다. 프로그램으로 야외 활동을 계획하였다. 취지는 친밀함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근처에 있는 놀이동산에 가거나 체육관에서 게임을 하려고 했다.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청년들이 그 시간엔 쉬를 원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누구도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필자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의 반응과 너무나 다르기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들 너무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다. 모두가 학업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지쳐 있었다. 수련회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지친 영육의 회복을 원했던 것이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의 청장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미래를 밝게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불경기에 불안해한다. 직장인들도 평생직장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청장년들의 상황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이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성장과 성공을 위한 많은 기회도 또한 열려 있다. 교회는 협력하여 청장년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적 성장을 넘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이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교회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 제 IV 장

###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의 상황

#### 1. 미국 내 한인 청장년의 상황

##### 1) 정체성의 위기

미국 내 한인 청장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 직접 이민 온 경우, 즉 이민 1 세대의 청장년들이 있다. 유학이나 가정 이민,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한 청장년들이다. 이들의 경우 한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편이다. 다른 한 부류는 이민 2 세의 경우이다. 조부모나 부모가 이민 1 세대이고 이들은 그들의 자녀들이다. 미국 내 한인 이민은 20 세기 초반부터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과 사탕 수수 밭에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온 한인들이 미국 이민의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sup>31</sup> 일제 강점기에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하는 한인들이 있었고, 1965년의 이민 개혁(Hart-Celler Act-이 법안은 National Origins Formula 를 폐지하고 가족 재결합과

---

<sup>31</sup> Ilpyong J. Kim, *Korean-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 (Elizabeth: Holym International Corp, 2004), 13.

미국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민 정책을 펼침)<sup>32</sup>,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나 가족관계 등으로 미국으로 이민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 내 동서 남북의 대도시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국 내 한인 2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민을 하며 겪은 문제점과는 다른 차원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들의 부모는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인 2세대들은 한국 문화와 가족 관계에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인이라는 정체성과 한국인 정체성 사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어디에 속해야 할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겪게 되며,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된다.

한인 2세대들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Minority)이라는 정서상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한인 2세대도 미국 사회의 주류는 백인들(White)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탐색과 외부 지지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적 탐구라 하면 한인 2세대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문화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 세대를 통한 통찰이 필요하다. 부모 세대가 어떤 경험을 겪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개인적인 정체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 부모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직간접적인 배움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인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할 수

<sup>32</sup> Jerry Kammer, “The Hart-Celler immigration act of 1965,”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2015), 1-2.

<sup>33</sup> Jacob Yongseok Young, *Korean, Asian, or American?*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2), 21.

있다. 예를 들어 한인 교회, 한인 문화 축제, 한인 공동체 등을 통해 한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정체성의 위기는 이민 1세대 청장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된다. 자기 자신은 한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만 선배 한인 1세대들이 그들의 자녀 한인 2세대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정체성의 부딪침이 한인 1세대 청장년들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똑같이 경험되기 때문이다. 청장년 이민 1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도움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가정사역에서 이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도록 다양한 목회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2)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아시안이 모범적인 소수자로 인식되어 왔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이상적인 이민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시안은 황색 위험(Yellow peril)<sup>34</sup>으로 불리며 경계를 받아왔다.<sup>35</sup>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아시안 혐오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심각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sup>34</sup> '황색 위험'은 동아시아계 사람들이 서구 국가와 그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19세기 후반 미국 내 중국계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후 일본 및 기타 아시아계 그룹에 적용되었다. 오늘날 '황색 위험'이라는 용어는 인종 비하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up>35</sup> Adrian De Leon, "The long history of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in the U.S.," *PBS News Hour*, (2020), <https://www.pbs.org/newshour/nation/the-long-history-of-racism-against-asian-americans-in-the-u-s> (Accessed October 22, 2023).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어졌다. 2020년 1월 21일,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미국 내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발표했고, 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전 국민적인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였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의 39%가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sup>36</sup>

필자가 살고 있는 뉴욕 인근 뉴저지 그리고 뉴욕에서도 아시안들이 인종 차별적인 공격, 차별적인 언행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3월 뉴욕시에서 23세 아시안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한 남성에 의해 지하철역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아시아계 사람들이 당한 공격 중의 극히 한 예이다.<sup>37</sup> NBC News에 따르면 팬데믹이 증가하는 시기인 2020년 3월 한 주간에만 미국에서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이 650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sup>38</sup> 이렇게 인종차별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미국 내 소수 인종(Minority)으로서 항상 직면해야 하는 도전이 되고 있다. 아시안들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아시아계 시민운동(The Asian Civil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함께 진행한다.<sup>39</sup>

<sup>36</sup> Russell Jeung, "Anti-Asian Racism and COVID-19: How to Stop the Virus of Hate," *Health Education & Behavior* 48, no. 5, (2021), 581-589.

<sup>37</sup> Kimmy Yam, "There were 3,800 anti-Asian racist incidents, mostly against women in past year," *NBC News*, (2021), <https://www.nbcnews.com/news/asian-america/there-were-3-800-anti-asian-racist-incident-mostly-against-n1261257> (Accessed on March 5, 2023).

<sup>38</sup> Gaitlin Yoshiko Kandil, "Asian Americans Report over 650 racist acts over last week, new data says," *NBC News*, (2020), <https://www.nbcnews.com/news/asian-america/asian-americans-report-nearly-500-racist-acts-over-last-week-n1169821> (Accessed on March 5, 2023).

<sup>39</sup> Bincheng Mao, "Anti-Asian racism is on the rise. Here's what we can do to combat it," *World Economic Forum*, (2021),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6/anti-asian-racism-what-we-can-do-to-combat-it/> (Accessed October 21, 2022).

연합감리교회의 총회인종관계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에서도 아시안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행동을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를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로 명명한 것이 아시안을 향한 중요범죄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이 발언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sup>40</sup> 이처럼 미국 내 아시안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이를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sup>41</sup>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 아시안들은 함께 노력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줌으로써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경제적 압박과 자녀의 학교 교육의 도전

청장년들의 사회적 위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일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중년에 해당된다. 미국의 고물가는 청장년들의 삶을 쉴 새 없이 일하게 내몬다. 청장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 많은 청장년들은 맞벌이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승희, 김선미의 연구에 따르면 청장년층이 속한 연령 30대와 40대 결혼가정이 각각 41.1%와 52.1%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절반가량이 맞벌이를 하는 것이다.<sup>42</sup>

<sup>40</sup> 김용선, “연합감리교회 소수민족 지도자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발언을 규탄하다,” 연합감리교뉴스, (2020), <https://www.umnews.org/ko/news/ethnic-minority-leaders-denounce-trumps-chinese-virus> (Accessed October 22, 2022).

<sup>41</sup> Vignesh Ramachandran, “What you can do to fight violence and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PBS News Hour*, (2021), <https://www.pbs.org/newshour/nation/what-you-can-do-to-fight-violence-and-racism-against-asian-americans> (Accessed October 22, 2022).

<sup>42</sup> 김승희, 김선미, “맞벌이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3), 355.

응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즉 경제적 빈곤과 기본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형편이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sup>43</sup>

이러한 삶의 형태는 청장년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든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쉽다. 바쁜 일상 중에서 주어진 시간에 좀 더 쉬며 또 다른 한주를 살아갈 육신의 에너지를 얻기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고된 고용형태로 인해 많은 청장년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회 출석에 소극적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청장년들이라 할지라도 예배만 드리고 헌신과 봉사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 가고 있다. 헌신과 봉사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청장년들 가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되어 가는 또 다른 요인에는 자녀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다. 한인들은 다른 어떤 인종보다 교육 열이 높다. 한인 자녀들은 학업 성취도도 높고 학업 외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경력이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방과 후 활동들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경우, 학생들의 경기가 주말에 많이 열린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이 여정에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들은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종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이나 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이다. 두 아들을 미국 공립학교 시스템에 보냈던 경험과 필자가 섬긴 교회에서 만난 청소년 가정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

<sup>43</sup> Ibid., 361.

#### 4) 마약의 유혹

미국 내 마약 오남용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끊임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종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내 마약 소비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마약 오남용으로 2022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sup>44</sup> 미국의 50개 중의 21개의 주가 대마초 합법화를 하고 있다.<sup>45</sup> 이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마초의 위험은 마약에 중독된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마약의 시작을 대마초에서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마리화나 보다 더 강한 마약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대부분은 더 위험한 마약을 하게 되어 결국은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sup>46</sup>

미국의 청소년 마약 문제도 심각한 걱정거리이다. John Elflein은 미국의 8, 10, 그리고 12학년들을 상대로 마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학생 중 27%가 불법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sup>47</sup> 그들 대다수는 마리아나를 복용했고, 그들 중 1.4%는 코카인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마약은 아시안 미국인들(Asian

<sup>44</sup> “US drug overdose deaths remain at near record highs, CDC says,” *11 News*, (2022), <https://www.cnn.com/2022/01/12/health/drug-overdose-deaths-cdc-report/index.html> (Accessed February 26, 2023).

<sup>45</sup> NCSL, “State Medical Cannabis Law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2), <https://www.ncsl.org/research/health/state-medical-marijuana-laws.aspx> (Accessed February 26, 2023).

<sup>46</sup> Rick Jones, 『젊은이들이 겪는 영적 전쟁』 한승용 역 (서울: 펴그림, 2003), 216.

<sup>47</sup> John Elflein, “Lifetime prevalence of drug use within grades 8, 10, and 12 in the U.S. 2021 by drug,” *Statista*,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0804/us-lifetime-prevalence-drug-use-grades-8-10-12-by-drug/> (Accessed February 5, 2023).

<sup>48</sup> John Elflein, “Drug use in the U.S. - Statistics & Facts,” *Statista*,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0804/us-lifetime-prevalence-drug-use-grades-8-10-12-by-drug/> (Accessed February 5, 2023).

Americans)도 피해 갈 수 없는 유혹이다. 미국 내 아시안들의 평균 마약 중독 문제는 다른 인종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sup>49</sup> 하지만 마약의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마약의 문제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마수를 뻗치고 있다. 한인 중독증 회복센터의 이해왕 선교사에 따르면, 2021 년도 한인들의 상담의 63%가 마약 중독에 관한 도움 문의였다고 한다. 그는 “마약 중독을 호소하는 10~20 대들은 주로 마리화나를 했지만 30~40 대와 그 이상은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들에 중독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라며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약 문제가 없었던 학생들도 대학 생활 중 마리화나를 접해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라고 설명했다.<sup>50</sup>

내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쉬쉬하면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이미 고등학교 몇몇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그들은 각 가정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교인들의 성인 자녀들 중에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생이 망가진 경우가 여럿 있다.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미 중독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마약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이다. 마약의 중독자를 둔 가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한인 가정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켜 나가기 위해 신앙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sup>49</sup> Michael Kaliszewski, “Alcohol and Drug Abuse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Addiction Centers*, (2022), <https://americanaddictioncenters.org/rehab-guide/addiction-statistics/asian-americans> (Accessed February 5, 2023).

<sup>50</sup> 장수아, “한인 마약 중독 빨간불...팬데믹 기간 고립감 영향,” *미주중앙일보*, (2022), <https://news.koreadaily.com/2022/01/30/society/generalsociety/20220130212256482.html> (Accessed February 5, 2023).

## 2. 고령화

### 1) 고령화 사회

유엔에 따르면 노령화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비해 얼마나 되는가로 결정된다. 그들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본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로 돌입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일본은 65세가 총인구의 23%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sup>51</sup> 오늘날 많은 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2년에 33개국의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이었다. 5년 전에는 19개국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50년에 일본을 제외한 고령자가 30% 넘는 나라는 64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52</sup> 사회가 이처럼 고령화 되어가는 이유는 의료 발전과 출산의 저하에서 기인한다. 19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곳이 유럽이었고 그들의 기대수명은 36세였다. 의료 기술의 진보로 인해 유럽의 2014년 기대수명은 80.67세로 급상승했다. 노인의 수명은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율은 안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sup>53</sup>

고령화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국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국가의 부담이

<sup>51</sup> 박철현,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시사 IN*, (20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Accessed January 22, 2023).

<sup>52</sup> UNFPA, “21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 Health Age International*, (2012), 3

<sup>53</sup> Andrei Cursaru, “Main Causes of Population Aging and its Consequences o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The University of Warwick*, (2019), 2-4.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면서 고갈의 염려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증오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년들의 관련된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한 예로, 폴 어빙(Paul Irving)에 따르면, 2010년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가 5,100,000 명이 2030년에는 7,800,000 명이 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치매인구가 2010년에는 5,500,000 명에서 2030년에는 11,900,000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sup>54</sup>

## 2)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

고령화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35년간 진행했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4.5 명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인구과잉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강력한 산하제한 정책을 추진했다.<sup>55</sup>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서는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해야만 했다.<sup>56</sup> 한국경제연구원은 G5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현황을 분석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보다 1.7 배가 빠른 연평균 4.4%로 나타났다. 2048년에는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57</sup>

<sup>54</sup> Paul Irving, *The Upside of Aging* (Hoboken: Milken Institute, 2014), 34.

<sup>55</sup> 김순은, 전소연,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행정논총」 제 53 권 제 2 호, (2015), 70.

<sup>56</sup>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51-52.

<sup>57</sup> 김경미,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 위," *The JoongAng*, (20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4291#home> (Accessed January 22, 2023).

한국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66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2014년 출산율이 1.25명이었고<sup>58</sup>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되었다.<sup>59</sup>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옥스포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만약에 한국이 이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소멸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sup>60</sup>

급격한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정책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3) 고령화되어가는 미국 사회와 교회

고령화 사회 문제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고령화로 이어진다. Faith Communities Today(FACT)는 미국 교회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한다.<sup>61</sup> 2019년 미국 인구 조사국의 따르면 미국인의 17%가 65세 이상인데, FACT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인의 33%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sup>62</sup> 미국 전체 사회 보다 미국 교회의 고령화가 더욱 심하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출산율

<sup>58</sup> 김순은, 전소연,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70.

<sup>59</sup> SB 리치퍼슨, “저출산 관련주..한국 출산율 0.78..출산율 10년째 OECD ‘꼴찌’,” *SB 리치퍼밀리*, (2023), <https://sb.pe.kr/8461> (Accessed January 22, 2023).

<sup>60</sup> 한기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 *중부매일*, (2023),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158> (Accessed February 17).

<sup>61</sup> Aaron Earls, “Average U.S. Pastor and Churchgoer Grow Older,” *Lifeway Research*, (2021), <https://research.lifeway.com/2021/11/01/americas-pastors-and-churchgoers-are-getting-older/#:~:text=Older%20pastors,in%20the%20past%20five%20years> (Accessed January 23, 2023).

<sup>62</sup> “미국교회가 고령화 되고 있다,” *아멘넷*, 2021, [https://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345](https://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345) (Accessed January 23, 2023).

저하로 인해서 아동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수의 감소와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sup>63</sup>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미국내 한인 교회들의 현상이기도 하다. 한인 교회는 이민자들의 수에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US Census Bureau 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10 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80 년 290,000 이었던 한인 인구는 2010 에 1,100,000 으로 증가했으나 2019 년에는 1,039,000 으로 감소하였다.<sup>64</sup> 미국 내 한인 인구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한인 교회 교인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한인 교회의 감소 경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 그룹이 주일학교와 청장년층이다. 청장년층의 자녀들 대부분이 주일학교에 속한다. 그러므로 청장년층의 감소는 주일학교의 약화로 이어진다.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 3. 청장년층의 교회 이탈

현재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Pew Research Center 의 조사에 따르면, 1928-1945 년에 태어난 세대와 그 후 베이비 붐 세대(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이 높았던 때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sup>65</sup> 들의 각각 84%와 76%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sup>63</sup> 박상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 논총』 40, (2014), 77.

<sup>64</sup> Cecilia Esterline and Jeanne Batalova,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2),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 (Accessed January 23, 2023).

<sup>65</sup> The Investopedia Team, “Baby Boomer: Definition, Years, Date Range, Retirement & Preparation,” Reviewed by Caitlin Clarke, *Investopedia*, (2022), [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aby\\_boomer.asp](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aby_boomer.asp) (Accessed March 9, 2023).

답한 반면, 밀레니엄 세대(X세대 또는 Y세대라고도 함)<sup>66</sup>들은 절반도 안 되는 49%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의 2/3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이내로 예배를 참석한다고 답했다.<sup>67</sup>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 교회의 젊은 층의 교회 이탈도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벌써 3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의 청장년층이 바로 이 세대에 해당된다. 이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위 세대들과 비교해서 네 배가 넘는다.<sup>68</sup>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무신론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다. 지금은 유신론이 거의 믿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sup>69</sup> 무신론의 광풍이 커져가는 시대 속에서 청장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아래 점점 더 많은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부 공통적인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하고,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개인의 신앙 및 가치관이 교회와 맞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sup>66</sup> Douglas Main, "Who Are the Millennials?," *Live Science*, (2017).

<https://www.livescience.com/38061-millennials-generation-y.html> (Accessed March 9, 2023).

<sup>67</sup> Pew Research Center. "In U.S., decline of Christianity continues at a rapid pace," *Pew Research Center*, (2019),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9/10/17/in-u-s-decline-of-christianity-continues-at-rapid-pace/> (Accessed March 9, 2023).

<sup>68</sup> 신승범, 이종민,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021), 274.

<sup>69</sup> James K.A. Smith, *How (Not) to Be Secular* (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26.

들어,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개인의 신앙과 맞지 않을 경우,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요즘 미국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큰 화두에 있다. 사회적으로 LGBTQ+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에 비해서 이러한 인식이 더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교회에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 낸다.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성세대들의 신앙관과 젊은 세대들의 신앙관이 다름으로 인해 동성애 반대 입장을 차별적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교회에 실망을 해서 떠나 진보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아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sup>70</sup>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는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것과 동성 결혼 주례에 대한 싸움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슈로 인해 교회는 교단 탈퇴에 대한 결정을 각 연회에 맡겼다. 그리하여 각 연회는 개체 교회가 잔류할지 혹은 탈퇴를 결정하도록 돕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교인총회를 통해 보수적인 입장(동성애 반대)을 견지하고 보수적인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Global Methodist Church로 교단을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에 교회의 동성애 반대 입장에 동의하지 못한 젊은 사람 몇 명이 불만을 표기하며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sup>70</sup> Adam Gabbatt, "Losing their religion: why US churches are on the decline," *The Guardian*, (2023),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jan/22/us-churches-closing-religion-covid-christianity> (Accessed March 1, 2023).

또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상 또는 정치적 관점이 개인과 맞지 않을 경우도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타협할 수 없고, 교회와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치관을 보인다면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sup>71</sup> 목회자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하다.

## 2) 불 신

교회 내부의 정책이나 문제, 리더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행동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 미디어나 한국 미디어에 비치는 교회의 이미지는 극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소식들이 한몫을 했다. 대형교회의 세습,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 교회 리더들의 위선적 모습 등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새길과 내일」에서 조사한 청년 86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14%의 청년이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sup>72</sup>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 가지 이유』라는

<sup>71</sup> Griffin Paul Jackson, "The Top Reasons Young People Drop Out of Church," *Christianity Today*, (2019), <https://www.christianitytoday.com/news/2019/january/church-drop-out-college-young-adults-hiatus-lifeway-survey.html> (Accessed March 1, 2023).

<sup>72</sup> 박혜정,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이들과 소통하려면," *Daily Good News*, (2019),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no=88328> (Accessed October 22, 2022).

책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중 22 번째가 목회자에 대해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sup>73</sup> 저자 이상화는 김병삼 목사가 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목회자들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질문에 5.7%의 사람만이 목회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답했고, 68.2%의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거나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신뢰도를 낮추게 되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74</sup>

안병욱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864 명의 기독 청년을 만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다. 대답의 14%가 대형교회의 세습, 목사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대답했다.<sup>75</sup>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는 기존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중성을 보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 즉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실망과 충격으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sup>76</sup>

김형식은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일컬어서 “몰락한 아버지의 세계를 폭로하는 타자”<sup>77</sup>로 정의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적대적이고 비판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판은 다른 청년세대들에게 교회에 대한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년세대들이 교회를

<sup>73</sup>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 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153.

<sup>74</sup> Ibid., 157

<sup>75</sup> 박민균, “교회 떠난 청년들 도전적 질문에 합리적 대답 제시해야 한다,” *기독신문*, (2019),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50> (Accessed October 22, 2022).

<sup>76</sup> 신승범, 이종민, “기독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적 연구,” 292.

<sup>77</sup> 김형식, 『좁비, 해방의 괴물-팬데믹, 종말,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철학적 사유』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2), 205.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78</sup> 전 세계는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온난화나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세대들 시선으로 보기에 교회는 공동선에 무관심하며 폐쇄적이고 집단이기주의 형태가 되었다고 여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경시한다고 보는 것이다.<sup>79</sup>

사회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북미 지역의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제도적 교회가 복잡한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해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교회를 거부하고 있다.<sup>80</sup> 교회는 점점 더 사회로부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큰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다.

### 3) 세상 학문의 도전

톰 비셋(Tom Bisset)은 그의 책, 『왜 믿는 집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얼마나 세상의 학문이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폴(Paul)의 사례를 통해서 그 도전은 굳건한 신앙인조차도 어떻게 불가지론자로 만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소개한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대학 심리학과에 입학한 폴은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신앙과 신화’에 얽매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했고 점점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는 결국 신학은 편협하고 지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그들의

<sup>78</sup> 이은경, “ESG 담론과 MZ 세대,” 「강단과 목회」(2023), 14-15.

<sup>79</sup> Ibid., 16

<sup>80</sup> Greg Okesson, *A Public Missi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34.

말에 설득당하고 만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끝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었다.<sup>81</sup>

과학의 발전도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은 신앙과 과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과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이 신앙보다 현실의 문제에 더 가능한 질문과 답을 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sup>82</sup> 과학이 자연 현상에 대한 증거 기반의 설명을 제공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이해와 전통적 종교 신념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신뢰의 손실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무신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2006년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 기독교를 비판한다. 그는 기독교를 오래되고 유해한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말한다. 보다 나은 방법은 종교를 버리고 과학으로 자연세계를 보며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킨스가 기독교에 대해 중요하게 비판하는 한 가지는 "틈새의 신"(God of the gaps) 개념이다. 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신의 작업으로 기인시킨다는 개념을 말한다. 도킨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적 게으름의 일종이며, 과학적 진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sup>83</sup>

<sup>81</sup> Tom Bisset, 『왜 믿는 집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전순영 역 (서울: 나침반, 1999), 11-38.

<sup>82</sup> David Kinnaman, *You Lost Me. Why Young Christians Are Leaving the Church...and Rethinking Faith* (Grand Rapids: Baker, 2011), 92-93.

<sup>83</sup>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New York: Bantam Press, 2006), 125-128.

도킨스는 또한 기독교의 "타락의 개념"도 비판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도킨스는 이러한 생각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며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킨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자신의 억압을 받아들이게 유도한다.<sup>84</sup> 도킨스가 비판하는 기독교의 또 다른 분야는 성 및 성적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다. 도킨스는 기독교 전통이 특히 여성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도킨스는 또한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제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은 오래된 차별적인 믿음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sup>85</sup>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4) 재미없는 신앙생활

“노잼”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 말은 영어의 “No”와 “재미”라는 우리말을 줄인 “잼”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재미가 없다는 뜻을 간단히 말하는 신세대 언어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는 그야말로 노잼의 장소로 인식된다. 필자는 1970년대 초생으로 1970년대에 유년기를 보내고 19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필자는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다. 돌아보면 그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재미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sup>84</sup> Ibid., 238-239.

<sup>85</sup> Ibid., 248-250.

교회에서의 활동은 평상시 친구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했다. 필자가 느낀 것은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지금은 그때와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급변하며 더 재미있는 것들이 속속 등장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유희형 인간” 즉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평가받는다. 율로(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가 그들의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한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경제분야에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이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MZ 세대 즉 2030 세대<sup>86</sup> 는 2020 년 기준 서울시 인구에서 가장 큰 세대로 조사되었다. 그들의 수는 전체 서울 인구의 35.5%로 약 343 만명이다.<sup>87</sup> 경제계는 이들의 성향 즉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을 그들의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유통가의 흐름이 이들에 집중하며 그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성향을 반영하고 있다.<sup>88</sup>

이전 세대들도 재미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들과 다른 점은 재미를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사실이다.<sup>89</sup> 기존세대들은 재미보다 필요하고 의미가 있으면 뭐든 해내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기존 세대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답습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 결과를 하나 소개한다.

<sup>86</sup>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 년 출생)와 Z 세대(1990-2000 년초반 출생) 를 통칭한 세대를 말한다.

<sup>87</sup> “MZ 세대 특징과 성향,” *Tistory*, (2021), <https://119-119.tistory.com/entry/MZ%EC%84%B8%EB%8C%80-%ED%8A%B9%EC%A7%95%EA%B3%BC-%EC%84%B1%ED%96%A5> (Accessed January 9, 2023).

<sup>88</sup> 손민지, “[MZ 세대 마켓 보고서] 2030 은 색다른 재미를 추구한다,” *글로벌이코노믹*, (2021), [https://news.g-eneews.com/article/Distribution/2021/11/202111221824292695bc88014e31\\_1?md=20211124085826\\_U](https://news.g-eneews.com/article/Distribution/2021/11/202111221824292695bc88014e31_1?md=20211124085826_U) (Accessed January 9, 2023).

<sup>89</sup> 신승범, 이종민, 281-282.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재미,  
 무조건 재미있다고보다는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원해요... 공감대와  
 통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느끼는 즐거움,  
 오락 같은 활동을 같이 할 때 느끼는 즐거움, 어딜  
 놀러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새로운 곳을  
 탐험한다든지 같은 즐거움이요. 요즘 세대들은 밖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교회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sup>90</sup>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내일이면 더 재미있는 영상, 비디오 등 새로운 즐길 거리가 제공될 것이다. 이런 세상과 달리 교회는 어떠한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들에게 구태의연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비친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관심을 갖게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그렇다면 재미를 추구하는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믿음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재미가 아닌 의미로 다가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들도 피곤한 인생, 지친 영혼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냉혹한 현실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사회 생활하는 젊은 층이 그 한복판에 서 있다. 재미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세상보다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신앙은 재미가 줄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금의 세대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 또한 인생의 짐을 지며 살아간다. 인생의 무게로 인해 마음의 아픔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숙명이다. 스미스(Smith)는 그의 책, 『How (Not) to Be Secular』에서 세속주의안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안에 믿음, 의심, 욕망은

<sup>90</sup> Ibid., 282.

끊임없이 발생하며,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존재한다. 그 속에서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균열에 복음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sup>91</sup> 누구나 복음을 향한 내적 갈망이 있는 것이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는 그들에게 복음은 깊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제공받는다.<sup>92</sup> 교회는 지친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주께로 초대해야 한다. 생수이신 주님<sup>93</sup>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초대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이면서 관계를 중요시한다. 또래 공동체에 속하길 원한다. 젊은 세대들을 위한 선교사역은 관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 교회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고 이웃이 되어 사랑을 전해야 한다. 먼저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하여 한 구성원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청장년 가정사역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재미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작은 참여도 소중히 여기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제계는 파악하고 이를 그들의 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sup>94</sup> 교회도 그들의 이와 같은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어 만남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신앙 생활안에서 더 큰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sup>91</sup> James K.A. Smith, *How (Not) to Be Secular*, 14.

<sup>92</sup> 요한복음 14:27.

<sup>93</sup> 요한복음 4:14.

<sup>94</sup> 손민지, “[MZ 세대 마켓 보고서] 2030 은 색다른 재미를 추구한다,”

것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교회는 세대의 다양성을 가지게 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제 V 장

### 청장년을 위한 가정사역

#### 1. 성경적 가정 세우기

##### 1) 결혼

가정사역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형식이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교회이기에 가정사역은 성경적 가정 세우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청장년층은 결혼 이전의 청년층부터 시작되고, 이미 결혼한 청장년들도 포함한다. 결혼 유무를 떠나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결혼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곳에 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창세기이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고, 둘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한다.<sup>95</sup> 이것은 종종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깊은 결합과 친밀감에 대한 은유로 이해된다.

신약성경 또한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sup>96</sup>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sup>97</sup> 을

---

<sup>95</sup> 창세기 2:24.

<sup>96</sup> 에베소서 5:25.

<sup>97</sup> 에베소서 5:22.

주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혼 생활에서 사랑, 존중,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거룩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sup>98</sup>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며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

## 2) 성경적 부부 관계

성경은 다양하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먼저, 예수님은 부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sup>99</sup> 라고 부부를 정의하셨다. 부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sup>100</sup> 아내는 남편을 존경<sup>101</sup> 하라고 권고한다. 부부는 서로 사랑과 존경하도록 지음 받았다.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sup>102</sup>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교하며 설명한다.<sup>103</sup> 하나님께 충실하듯이 부부도 서로에게

<sup>98</sup> Robert Hampshire, "What Is the Biblical Definition of Marriage?," *Christianity.com*, (2020), <https://www.christianity.com/wiki/christian-life/what-is-the-biblical-definition-of-marriage.html> (Accessed November 14, 2022).

<sup>99</sup> 마태복음 19:5-6.

<sup>100</sup> 에베소서 5:25.

<sup>101</sup> 에베소서 5: 33.

<sup>102</sup> 베드로전서 3:7.

<sup>103</sup> 호세아 2:16-20.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sup>104</sup>

성경은 또한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가르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신성하고 친밀한 결합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한 남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는 이 거룩한 언약을 이혼이나 간음으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sup>105</sup> 전반적으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사랑, 희생, 이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3) 성경적 부모와 자녀 관계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여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믿음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sup>106</sup> 에베소서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다.<sup>107</sup>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잠언은 부모에게 마땅히

<sup>104</sup> 히브리서 13:4.

<sup>105</sup> Richard T. Ritenbaugh, "Husband-Wife Relationships," *Bible Tools*, <https://www.bibletools.org/index.cfm/fuseaction/Topical.show/RTD/cgg/ID/2195/Husband-Wife-Relationships.htm> (Accessed March 9, 2023).

<sup>106</sup> Christina Dronen, "11 Bible Verses About Parenting That Will Help You Be Better," *Gentle Christian Parenting*, (2023), <https://gentlechristianparenting.com/biblical-role-of-parents/> (Accessed 2023.3.9).

<sup>107</sup> 에베소서 6:4.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sup>108</sup> 라고 가르친다. 이 구절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도덕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티모시 폴 존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전이나 회당, 교회의 목사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제자 훈련의 장으로 거룩하게 형성되었으며,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제자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sup>109</sup>

자녀들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종교기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삶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출애굽기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느니라.<sup>110</sup> 라고 말씀하셨다. 그 약속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장수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의 영적 및 도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중심의 방식으로 양육하도록 격려한다.<sup>111</sup>

<sup>108</sup> 잠언 22:6.

<sup>109</sup> Paul Renfro et al.,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3 Views*, 2nd Edition. (Nashville: B&H Academic, 2019), 18.

<sup>110</sup> 출애굽기 20:12.

<sup>111</sup> Steven Koster, "Christian Parenting at the Dinner Table," *Family Fire*, (2014), <https://familyfire.com/devotions/christian-parenting-at-the-dinner-table> (Accessed January 15, 2022).

## 2. 가정의 의미

### 1)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

나라(국가)의 구성 요소는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이다. 어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국민)이 하나님의 통치(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이다.<sup>112</sup>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실천돼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에서 남녀(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야 했다.<sup>113</sup>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국민이었던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한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이 그대로 이어졌다. 모든 남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야 했고<sup>114</sup>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다.<sup>115</sup>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 가정은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sup>112</sup> 이종필,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원리편』 (파주: 넥서스, 1992), 10.

<sup>113</sup> 창세기 2:23.

<sup>114</sup> 창세기 2:24.

<sup>115</sup> 창세기 9:7.

## 2) 교회로서의 가정

가정은 교회의 기본 단위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이다.<sup>116</sup>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먼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된다. 함께 모여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신앙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sup>117</sup> 성경은 가정에서의 종교적 교육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말씀 전달은 가정의 자녀들의 종교적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 성경의 두 본문, 신명기 6: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시편 78:1-8,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sup>116</sup> 마태복음 28:18-20.

<sup>117</sup> 디모데후서 2:2.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sup>118</sup>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크리스 화이트(Chris Wright)는 개인이 태어날 때나 (노예나 거주 외국인의 경우와 같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계약 백성의 구성원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19</sup>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가족을 통해 표현되고, 양육되고, 전승되었다.<sup>120</sup>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신앙이 그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실천되는 기초 신앙 학교가 되고 또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sup>118</sup> Denise Muir Kjesbo, Lou Y. Cha, "Family Ministry: Past, Present, Future," *Christian Educational Journal*, (2020), 489-490.

<sup>119</sup> Christopher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Nottingham: IVP, 2004), 340.

<sup>120</sup> Church of England, "Families & Households in the Old Testament - A Brief Overview," *Church of England*, [https://www.churchofengland.org/sites/default/files/2022-06/families\\_households\\_in\\_the\\_old\\_testament\\_-\\_a\\_brief\\_overview.pdf](https://www.churchofengland.org/sites/default/files/2022-06/families_households_in_the_old_testament_-_a_brief_overview.pdf) (Accessed June 2022).

### 3) 학교로서의 가정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존재로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는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의 아버지는 농담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농담을 들으며 자란 필자는 아버지의 농담이 재미없고 때론 실없다고 느껴서 싫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 또한 아버지와 같은 농담을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전수된 것이다. 이처럼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배운다. 부모의 보살핌으로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간다.

또한 자녀는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자녀는 보고 배운다는 의미이다. 부모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촉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자녀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사회적, 정서적 발달, 학업 성공 등 다방면에서 성장에 기여한다.<sup>121</sup>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교육의 현장인 것이다. 부모의 교육이 이와 같이 중요하기에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라고 명하신다. 성경의 명령대로 구약 시대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전승지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가정은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작은

<sup>121</sup>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Parenting Matters: Supporting Parents of Children Ages 0-8*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6), 1-14.

학교인 것이다.<sup>122</sup> 가정은 자녀들이 최고의 신앙과 도덕,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소양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았다.

### 3. 가정교회로서의 신앙교육

#### 1) 구약에서의 가정교회로서의 신앙교육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은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구약성경과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교육은 종종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부모 모두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유대교의 중심 텍스트인 토라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목표는 히브리 공동체의 종교 문화와 가치를 후세에 전수하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가정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구약의 전반부부터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창세기 18 장 19 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그의 자식들과 권속에게 여호와와 의 뜻을 전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sup>123</sup>

<sup>122</sup>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70.

<sup>123</sup> Albert Kilgore, “GOD’S HEART FOR FAMILY DISCIPLESHIP IN THE OT,” *Mission Bible Church*, <https://www.missionbible.org/the-latest/gods-heart-for-family-discipleship-in-the-ot> (Accessed March 9, 2023).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데에도 같은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절기가 있다. 유월절(출 12:26-27)과 장막절(민 29:12)이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8일간 진행된다. 초막절은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지내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기념한다.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7일간 지킨다. 출애굽기 12:24-27,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실을 전하고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4</sup> 유월절과 초막절과 같은 특별한 계절에 종교 교육은 히브리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축제는 종종 어린이들의 종교적 지식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지역 사회의 전통과 관행을 전수하는 기회로 사용되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가족들은 함께 모여 의식을 지키고, 가르침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기념하는 사건과 관련된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다시 전했다. 이러한 축하 행사는 종교 교육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으며 가족 구성원과 더 넓은 지역 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세의 가르침은 여호수아에게로

---

<sup>124</sup> Ibid.

연결되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억하도록 열두 돌을 쌓아 기념비를 만들도록 하셨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sup>125</sup>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명령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족 안에서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부모는 자녀를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자라나도록 돌보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적 스승이고 자녀는 그들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신약에서의 가정교회로서의 신앙교육

신약의 가정사역은 가족과 가정 관계에 관한 초기 기독교인의 가르침과 관행을 가리킨다. 신약은 기독교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신약 가정사역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가족 내에서의 사랑과 연합의 중요성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18-19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했다.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상호 책임을 강조한다.

신약 가정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하는 부모의 역할이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다. 이 구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

<sup>125</sup> 여호수아 4:1-9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가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신약은 가족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26</sup> 예를 들어,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았던 끈끈한 집단으로 묘사한다.<sup>127</sup>

결론적으로,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에게 풍부한 지침을 제공한다.<sup>128</sup> 신약성서의 가정사역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 연합, 상호 지원의 중요성,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부모의 역할, 가족을 지원하는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3) 종교 개혁자들의 가정교회로서의 신앙교육

16 세기와 17 세기에 종교적 변화와 갱신을 주장했던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도 가정 사역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학적 신념과 성경 해석의 영향을 받아 가정 사역을 정의했으며,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성 역할, 교육 등에 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와 관행에 도전했다. 그들은 사회가 변화하여 가족의 구성도 변화하기에 그들에 맞는 가정 사역을 할 필요에 대해서 강조했다.<sup>129</sup>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은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강조한 개신교 종교개혁의 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루터교회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신성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sup>126</sup> 누가복음 8:21.

<sup>127</sup> 사도행전 4:32.

<sup>128</sup> Bob Deffinbaugh, "2. The New Testament Church—Its Ministry," *Bible.org*, <https://bible.org/seriespage/new-testament-church%E2%80%94its-ministry> (Accessed March 9, 2023).

<sup>129</sup> Steven Ozment, "Reinventing Family Life," *Christianity Today*, (1993), 34-40.

믿었다. 그는 부모들에게 성경과 교리 문답을 종교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권장했으며 종교 교육은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칼빈주의의 창시자 존 칼빈도 종교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그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하며 종교 교육이 가정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칼빈은 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부모의 가르침을 돕기 위해 교리 문답과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교육이 성경 연구에 기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들은 성경연구를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서 궁극적인 권위로 보았다. 그들은 또한 종교교육이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포함하는 체험적이고 상호 작용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미래세대가 개신교 신앙을 계승하고 세상에서 그들의 신앙대로 살아갈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했다.<sup>130</sup>

감리교 창시자이고 18 세기 영국에 복음주의 부흥운동(Evangelical Revival)을 불러일으킨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위대한 역사 뒤에는 그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가정 내 청교도적 신앙교육이 있었다.<sup>131</sup>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커셔(Lincolnshire)의 엠펙스(Epworth)에서 영국 성공회 사제인 사무엘 웨슬리(Samuel Wesley)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Susanna Wesley) 사이에서 15 번째로 태어났다. 그들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132</sup> 웨슬리 부모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했다.<sup>133</sup> 특별히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녀의 고백이 있다.

<sup>130</sup> 설은주, 『가정사역론』, 79-82.

<sup>131</sup> 이후정 외 19명,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7-8.

<sup>132</sup> 사무엘과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중에 9명은 어릴 적 사망했다. 아들 3명, 딸 7명이 생존했다.

<sup>133</sup> 김영선, 『사진으로 따라가는 존 웨슬리』 (서울: 밀알기획, 2007), 20-36.

그들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의 20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 있다고 해도 매우 적을 것이다. 이것을 특별한 기술 없이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하게 감당해 왔지만, 내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는 일이다.<sup>134</sup>

수산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했다. 그녀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겨서 자녀들이 성경 낭독, 기도, 교리문답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였다.<sup>135</sup> 웨슬리는 어린 시절의 가정 내 신앙교육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인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백했다.<sup>136</sup>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고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했을 때 웨슬리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고 그 인물을 통해 영국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 4) 초대 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

초대 교회의 가정 교회 모습은 조금 더 확장된 공동체로 발전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는 개인 가정에서 신자들이 소규모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가정 교회가 포함되었다.<sup>137</sup> 이 가정 교회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식사를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주요 모임 장소 역할을 했다. 가정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책임을 맡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

<sup>134</sup> Robert G. Tuttle Jr,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김석천 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1), 41.

<sup>135</sup> Martin Schmidt,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trans. Norman P. Goldhawk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59-62.

<sup>136</sup> Robert G. Tuttle Jr, 52-53.

<sup>137</sup> 교린도전서 16:19.

가정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를 지원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를 제공했다. 또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는 물론 회의 자체의 형식에 대해서도 더 큰 유연성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번갈아 가며 말씀을 하거나 토론을 주도하는 반면, 다른 가정교회에서는 노래, 기도, 식사에 더 집중했다.<sup>138</sup>

초기 기독교 가정 교회는 또한 여행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는 환대를 실천하는 장소였다. 이와 같이 가정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영적 삶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sup>138</sup> 고린도전서 11:17-22.

## 제 VI 장

### 청장년 가정사역 세우기 준비

#### 1. 동기 부여

무엇보다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요구된다.<sup>139</sup> 사이몬 시넥(Simon Sinek)은 그의 책, 『Start with Why: How Great Leaders Inspire Everyone to Take Action』에서 이렇게 말한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감을 줄 수 있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인센티브나 이익과는 거의 무관한 목적의식이나 소속감을 부여합니다.<sup>140</sup>

---

<sup>139</sup> John Maxwell, 『당신안에 잠재된 리더쉽을 키우라』 강준민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29.

<sup>140</sup> Simon Sinek, *Start with Why: How Great Leaders Inspire Everyone to Take Action* (New York: Penguin, 2009), 6.

적극적인 동기부여야 말로 청장년들 스스로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다. 청장년들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겨나면 그들은 무엇보다 더 이 사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시리즈 설교,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교회’를 계획하여 가정의 달인 5월에 연속 설교를 한다. 이 시리즈 설교와 더불어 강의 및 세미나를 함께 진행한다. 주제는 ‘한인 2 세들의 건강한 정체성의 중요성’으로 한다. 대뉴저지연회(The Greater New Jersey Annual Conference)에 속해 있으며 현재 Teaneck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길재 목사를 강사로 초대했다. 박길재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2 세 사역자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된다. 그를 통해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 지식을 통해서 2 세 자녀들의 정체성 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청장년 부모들에게 교육한다. 그는 기독교교육학 박사이며 목회자로서 가정 내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가정사역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 가정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 제목, ‘가정사역란 무엇인가’를 통해 가정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강사는 필자가 담당하고 내용은 뒤에 다루어질 가정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발제 한다.

&lt;표 1&gt;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교회’ 를 위한 설교 시리즈

날짜	제목	본문	내용
첫째주	가정에서의 말씀 회복	신명기 6:4-9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강론되어야 한다.
둘째주	가정에서의 예배 회복	시편 95 편	진정한 예배로의 초대
셋째주	가정에서의 기도 회복	마 21:21-22, 엡 6:12-17	기도의 능력과 영적무장
넷째주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	엡 6:1-4	믿음안에 있는 가족관계

<그림 1> 바른 정체성 세우기 세미나 포스터



# KOREAN? OR AMERICAN?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정체성 가지고 당당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날짜: **June 11, 2022**

시간: **12pm-2pm**

장소: **소예배실**

강사: 박길재 목사  
Ph.D 기독교 교육



## 2. 모집 및 실행

6월 첫 주 주일부터 가정사역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 각 예배 후 교회 로비에 등록처를 만들어 등록을 받는다. 이 모집은 7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주일 1부/2부/3부 예배 전 후로 진행한다. 더불어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올려놓아 메일로도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7월 한 달 동안 등록을 한 가정들을 위한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8월 첫 주 주일 12시에 환영 만찬과 함께 시작한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은 각 가정이 자기 소개하고 참석 동기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 담임 목사님의 감사인사 후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역이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각 가정이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은 서약식과 합심 기도로 끝낸다.

가정사역은 기본적으로 1년 프로그램으로 한다. 각 가정은 1년동안 해야 할 사역의 자료를 제공받는다. 1년 주기가 끝나면 새로운 가정들을 모집하여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즉 매년 이 사역은 반복되는 것이다. 이 사역을 통해서, 참여한 가정 안에 가정사역이 습관화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각 가정이 자발적으로 이 사역을 유지해 나가 가정에 작은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길 꿈꾸는 것이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 소그룹들이 함께 이 영적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참여 가정들을 함께 모아서 속회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지역이나 나이 별로 속회를 구성하여 왔지만, 가정사역에 참여한 가정들이 한 속회가 됨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조직 편성을 해 준다.

### 3. 프로그램 준비

#### 1) 성경 통독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가족 멤버들은 같은 신앙적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고, 각자의 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서로 토론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키워갈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써 가정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가족 멤버들은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각자의 신앙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우리가 더 바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경은 가정 구성원 모두의 영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들은 성경을 함께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목도하며 부모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영적 성장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가정 교회에 있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은 우선시되어야 할 사역이다.

성경은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이들에겐 이해하기 어렵고 다소 민망한 내용들(근친관계, 폭력, 살인 등)도 존재한다. 그래서 전 세대가 읽고 나눌 수 있게 인물 중심으로 성경 통독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성경 통독은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읽기”의 개념을 따른다. 조병호 박사는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의 서구적 성경 읽기 방식에서 전체적으로 읽는 동양적 방식의 성경 읽기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을 통(通)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 하였다.<sup>141</sup>

통(通)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혹은 한 장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통으로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sup>142</sup> 통(通)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부분이 아닌 통으로 읽게 될 때에 성경 66 권 전체를 아우르며 이해하게 되고 이는 파편적이며 부분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성경의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sup>143</sup>

조병호 박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 여 년의 시간과 1,500 여 곳의 공간과 5,000 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sup>144</sup>

목회자 대학(Pastors' College)를 설립하고 목회자 양성에 힘을 써왔고 목회자들의 목회자,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설교자<sup>145</sup>로 평가받는 찰스

<sup>141</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51.

<sup>142</sup> 조병호, 『성경 한권이든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9.

<sup>14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51.

<sup>144</sup> Ibid., 19.

<sup>145</sup> Charles Spurgeon, 『목회자들을 위하여』 박범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3-4.

스펠전(Charles Spurgeon)은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다. 그 중에서 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sup>146</sup>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사역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스펠전이 강조한 것과 조병호 박사의 통(通)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구약을 통(通)으로 보면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로 읽어 나간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다.

김영래는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실현하며,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로 우리는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연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로 세상을 배운다. 바로 이 이야기의 구연이  
스토리텔링이다.<sup>147</sup>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성경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그려낸다. 가정사역에서 온 가족 성경 읽기는 신 구약 통으로 성경을 보며, 연대기 순서대로 읽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성경 통독을 한다.

온 가족 성경 통독을 위해 Bible Telling 자료를 사용한다. Bible Telling 사역은 사람들이 성경과 그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술 스토리텔링의

<sup>146</sup> Ibid., 17.

<sup>147</sup>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52-153.

실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비영리 조직이다. 이 조직은 모든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과 조직을 위한 리소스와 훈련을 제공한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260 장으로 요약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를 통해 이 요약장들을 시청할 수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인물과 이야기(Story) 중심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온 가족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지도한다.<sup>148</sup>

## 2)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순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다. 바이러스 전염을 염려하여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 했다. 신앙생활을 교회(예배당이 있는 곳)에서만 하던 사람들도 팬데믹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예배하며 경건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제는 집도 교회당과 마찬가지로 예배처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게 되더라도 팬데믹이 가져다준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팬데믹이 갑자기 종식이 될지라도 오랫동안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sup>148</sup> BibleTelling, "All the Story of the Bible." *BibleTelling.com*, <https://www.bibletelling.org/product/all-the-stories-of-the-bible/> (Accessed October 21, 2022).

변화에 적응하며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팬데믹이 집에서도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집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에서부터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왔다.

“가족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논문에서 김영래는 신앙교육은 각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sup>149</sup> 이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마땅히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가족의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믿음 교육을 해 왔다. 이 전통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지내온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나 오늘날까지 그것을 지켜오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식탁에서의 신앙 교육은 식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sup>150</sup>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에버하르트 플라테(Eberhard Platte)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정 교육의 임무를 국가에 맡겼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대신 인본주의, 계몽주의, 가치의 상대화, 무가치 주의 세계관으로 잠식당했음을 지적한다.<sup>151</sup>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이 좋은 전통,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회복시켜서 가정 속에서 신앙운동이 회복될 때

<sup>149</sup> 김영래, “가족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 (2016), 395-396.

<sup>150</sup> Sussha Roberts, “10 Lessons from Jesus’ Table,” *Wycliffe*, <https://www.wycliffe.org/feast/10-lessons-from-jesus-table> (Accessed March 9, 2023).

<sup>151</sup> Eberhard Platte,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정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2), 14-15.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자라나고 그들을 통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3) 가족단위 선교 - 온라인 선교

청장년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과 크게 다른 점은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능하다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되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인터넷 사용은 증가하며 세대 간 인터넷 이용률은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9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 연령 인터넷 이용률은 91.8%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은 20 대가 99.9%, 30 대는 100%, 그리고 그 위로 갈수록 조금씩 하향세를 보였다. 70 세 이상은 38.9%로 나타났다.<sup>152</sup>

교회 구성원들로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주된 연령층은 인터넷 사용을 청장년층에 비해 다소 적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은 점점 더 빨리 성장 변화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과학기술 사용 능력은 어른 세대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청장년 세대에게 인터넷 등 과학기술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2010 년 미국의 리서치 전문가 조지 바나는 미국 교회 안에 일고 있는 6 가지 트렌드를 발표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더 내세보다 현세에 관심을 가지며 이는 그들을 사회 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다.<sup>153</sup> 이는 분명

<sup>152</sup> “국민 91.8% 인터넷 이용,” *동아일보*, (202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226/99884384/1> (October 10. 5. 2022).

<sup>153</sup>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1) 연재를 시작하며,” *국민일보*, (2012),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404521> (October 10. 5. 2022).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덜 갖게 함으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도 긍정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그동안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가 된다면 청장년 세대들이 사회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sup>154</sup>

이러한 신앙 운동 아래 온라인 사역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온라인 예배는 국경이 없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곳이 교구가 될 수 있다. 선교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선교는 대면으로만 하던 직접 몸이 가는 선교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뉴저지연합교회는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해 왔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단기선교는 중단되었고 파송된 선교사님들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상황에 영향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교를 이전 방식과 같이 ‘가서 하는 선교’에 익숙해진 결과이다. 온라인으로 하면 선교는 멈춰지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교하면 선교지의 가정 구석구석으로 찾아가는 선교를 할 수 있다. 나의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 중장기 선교를 위해 떠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인터넷 세상은 열어주고 있다.

---

<sup>154</sup> Ibid.

## 제 VII 장

### 청장년 가정사역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계획

#### 1. 성경 통독 연간 계획

BibleTelling 에서 제공하는 성경 스토리는 총 260 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전체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 &lt;그림 2&gt; BibleTelling Table of Contents

## Table of Contents

**Beginnings**

- 1 Creation
- 2 Adam & Eve
- 3 The Fall
- 4 Cain & Abel
- 5 The Flood
- 6 World After the Flood

**Abraham**

- 7 Call of Abraham
- 8 Melchizedek
- 9 The God Who Sees Me
- 10 Promise of Isaac
- 11 Bargaining with God
- 12 Sodom and Gomorrah
- 13 Two Daughters
- 14 She's My Sister
- 15 God Hears
- 16 Trial of Abraham
- 17 Death of Sarah

**Isaac**

- 18 Rebekah
- 19 Selling the Birthright
- 20 She's My Sister 2
- 21 The Well Digger

**Jacob**

- 22 Stolen Blessing
- 23 Jacob's Two Wives
- 24 Speckled Spotted & Streaked
- 25 Leaving Laban
- 26 Two Camps
- 27 Dinah

**Joseph**

- 28 Sold Into Slavery
- 29 Judah
- 30 Joseph's Rise to Power
- 31 Joseph's Family Reunion
- 32 Israel in Egypt

**Moses**

- 33 Birth of Moses
- 34 Finding a Wife
- 35 Call of Moses
- 36 Zipporah
- 37 Straw for Bricks
- 38 Pharaoh's Plagues
- 39 Passover
- 40 Red Sea
- 41 What Is It?
- 42 The Lord My Banner
- 43 The Law
- 44 The Golden Calf
- 45 The Tabernacle
- 46 Unholy Fire
- 47 Graves of the Craving
- 48 Spitting in Her Face
- 49 Twelve Spies
- 50 Korah's Rebellion
- 51 Speak to the Rock
- 52 Balaam's Donkey
- 53 Balaam's Prophecy
- 54 The Death of Moses

**Joshua**

- 55 Rahab
- 56 Crossing Jordan
- 57 Jericho
- 58 Achan
- 59 Sun Standing Still
- 60 Joshua's Farewell

**Job**

- 61 Job's Three Friends

**Judges**

- 62 Othniel & Ehud
- 63 Deborah & Barak
- 64 Gideon's Fleece
- 65 Three Hundred Men
- 66 King of Trees
- 67 Jephthah's Vow

- 68 The Birth of Samson
- 69 Strong & Sweet
- 70 Foxes and a Jawbone
- 71 Samson & Delilah
- 72 Grandson of Moses
- 73 Prelude to War
- 74 Brides for Benjamin
- 75 Ruth & Naomi
- 76 Ruth & Boaz
- 77 Call of Samuel
- 78 Ark of God Captured
- 79 Ark of God Returned
- 80 Ebenezer

**Saul**

- 81 Saul Made King
- 82 Peace for an Eye
- 83 Failing the Test
- 84 Jonathan's Victory
- 85 Saul's Disobedience

**David**

- 86 Anointing David
- 87 Goliath
- 88 David Earns a Wife
- 89 Protecting David
- 90 Three Arrows
- 91 Running from Saul
- 92 Corner of Saul's Robe
- 93 Abigail
- 94 Sparing God's Anointed
- 95 Staying by the Stuff
- 96 Witch of Endor
- 97 Death of Saul & Jonathan
- 98 Joab & Abner
- 99 David Made King
- 100 David's Mighty Men
- 101 Moving the Ark
- 102 Building an Empire
- 103 Ammonites
- 104 Bathsheba
- 105 Nathan's Story

106 Tamar  
 107 Absalom's Return  
 108 Absalom's Revolt  
 108B Running to the King  
 109 Absalom's Defeat  
 110 David's Kingdom Restored  
 111 Wise Woman of Abel  
 112 Ethnic Cleansing  
 113 Numbering the People  
 114 Transfer of Power  
 115 Death of David & Joab

#### **Solomon**

116 Wisdom of Solomon  
 117 Building the Temple  
 118 Queen of Sheba

#### **Early Kings**

119 Kingdom Divided  
 120 Jeroboam's Sin  
 121 The Old Prophet  
 122 Rehoboam & Jeroboam  
 123 Abijah & Asa

#### **Elijah**

124 Elijah and the Widow  
 125 Elijah on Mount Carmel  
 126 Elijah on Mount Horeb  
 127 The Wounded Prophet  
 128 Naboth's Vineyard  
 129 Jehoshaphat & Ahab  
 130 Jehoshaphat's Victory  
 131 Captain of 50  
 132 Elijah in the Whirlwind

#### **Elisha**

133 Ditches of Water  
 134 Oil, Stew, Bread, and Ax  
 135 Shunammite Woman  
 136 Naaman  
 137 Gehazi  
 138 Blind Soldiers  
 139 Four Lepers  
 140 Elisha Crying  
 141 Jehu

142 Jezebel  
 143 Athaliah  
 144 Joash  
 145 Death of Elisha

#### **Later Kings**

146 Jonah & the Fish  
 147 Jonah & the Vine  
 148 Thistle & the Cedar  
 149 Uzziah  
 150 Ahaz  
 151 Gomer  
 152 Israel in Exile  
 153 Hezekiah  
 154 King of Assyria  
 155 Fifteen Years  
 156 Evil King Who Repented  
 157 A Book is Found  
 158 Josiah's Reforms  
 159 Broken Pot  
 160 Burning the Book  
 161 Two Baskets of Figs  
 162 Jerusalem Under Siege  
 163 Well of Mud  
 164 Going to Egypt

#### **Daniel**

165 Valley of Dry Bones  
 166 Daniel's Decision  
 167 Nebuchadnezzar's Dream  
 168 Furnace Full of Fire  
 169 Becoming a Wild Animal  
 170 Handwriting on the Wall  
 171 Den of Lions

#### **Ezra & Nehemiah**

172 Rebuilding the Temple  
 173 Ezra  
 174 Rebuilding the Walls

#### **Esther**

175 Esther Becomes Queen  
 176 Esther Saves Her People

#### **Jesus – Early Years**

177 Gabriel's Announcements  
 178 The Birth of Jesus  
 179 Gifts for the King  
 180 Twelve Years Old

#### **Jesus – Early Ministry**

181 Baptism and Temptation  
 182 Water to Wine  
 183 New Birth  
 184 Woman at the Well

#### **Jesus – Galilean Ministry**

185 Rejected in Nazareth  
 186 Fishing for People  
 187 Sermon on the Mount  
 188 Forgiving Sins  
 189 Calling the Twelve  
 190 A Roman and a Funeral  
 191 Forgiveness and Grateful  
 192 Four Soils  
 193 Teaching with Stories  
 194 Calming Two Storms  
 195 Twelve Years  
 196 Pool of Bethesda  
 197 John Beheaded  
 198 Meal & A Walk  
 199 Bread of Life  
 200 Feeding 4,000  
 201 Transfiguration  
 202 Paying Temple Tax  
 203 Seventy Times Seven

#### **Jesus – Heading Back South**

204 Caught in Immorality  
 205 Man Born Blind  
 206 Lepers, Judge, & Pride  
 206B Rich Young Ruler  
 207 Good Samaritan  
 207B The Rich Fool  
 208 A Large Banquet  
 209 Lost Sheep, Coin, & Son  
 210 Rich Man and Lazarus  
 211 Raising Lazarus  
 212 The Great, the Rich,  
 & the Poor

**Jesus – Final Week**

- 213 Triumphal Entry
- 214 Last Week of Ministry
- 215 The Last Supper
- 216 Gethsemane
- 217 Trial Before Jews
- 218 Trial Before Romans
- 219 Crucifixion and Burial

**Jesus – Post Resurrection**

- 220 Resurrection
- 221 Road to Emmaus
- 222 Winning Back Two Disciples
- 223 Commission and Ascension

**Peter – Jerusalem**

- 224 Coming of the Holy Spirit
- 225 A Crippled Man Healed
- 226 Ananias & Sapphira
- 227 Apostles & Deacons
- 228 Stephen, the First  
Christian Martyr

**Peter – Judea & Samaria**

- 229 Ministry of Philip
- 230 Conversion of Saul
- 231 Healing of Dorcas
- 232 Cornelius
- 233 Christians at Antioch
- 234 Jail Break

**Paul – 1st Missionary Journey**

- 235 First Missionary Journey
- 236 From Worship to Stoning
- 237 Keeping Jewish Laws
- 238 Freedom to Serve - Galatians

**Paul – 2nd Missionary Journey**

- 239 Singing in Jail
- 240 Riots and Laughter
- 241 Trials & Persecution -  
1 Thessalonians
- 242 Day of the Lord -  
2 Thessalonians
- 243 Mob in Corinth

**Paul – 3rd Missionary Journey**

- 244 Riot at Ephesus
- 245 Church Fights -  
1 Corinthians (a)
- 246 Spiritual Gifts -  
1 Corinthians (b)
- 247 The Worries of Love -  
2 Corinthians (a)
- 248 The Joys of Giving -  
2 Corinthians (b)
- 249 Life without Christ -  
Romans (a)
- 250 Life with Christ - Romans (b)
- 251 Going to Jerusalem
- 252 Riot in Jerusalem

**Paul – Going to Rome**

- 253 Plot to Kill
- 254 Felix, Festus, & Agrippa
- 255 Storm at Sea
- 256 Shipwreck & Rome
- 257 Onesimus - Philemon

**Book of Revelation**

- 258 John's Visions
- 259 New Heaven & Earth
- 260 New Jerusalem

이 자료들 중에 인물들 중심으로 52 주로 정리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요약된 내용을 함께 읽을 수 있고 각 주마다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요약본을 다시 읽음으로써 본문을 정리할 수 있다. 편성표 첫 번째 칸은 각 주(week)를, 두 번째 칸은 스토리 주제를, 세 번째 칸은 성경 본문을 넣었다. 52 주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Weekly Bible Story Reading Schedule

Wk	Story	Scripture
1	1. Creation & 2. Adam & Eve	Genesis 1 & Genesis 2
2	5. Noah- the Flood	Genesis 6 - 9:17
3	7. Call of Abraham	Genesis 12
4	16. Trial of Abraham	Genesis 22
5	21. Isaac - The Well Digger	Genesis 26:12-33
6	22. Jacob - Stolen Blessing	Genesis 27
7	26. Jacob - Two Camps	Genesis 32 - 33
8	28. Joseph- Sold Into Slavery	Genesis 37 & 39
9	30. Joseph' s Rise to Power	Genesis 40 - 41
10	31. Joseph' s Family Reunion	Genesis 42 - 46
11	33 Birth of Moses	Exodus 1 - 2:10
12	35 Call of Moses	Exodus 3 - 4:18
13	38. Pharaoh' s Plagues	Exodus 7 - 9
14	43. The Law	Exodus 19 - 20 & 24

15	49 Twelve Spies	Numbers 13 - 14
16	55 Rahab	Joshua 1 - 3:6
17	61 Job' s Three Friends	Book of Job
18	71 Samson & Delilah	Judges 16
19	75 Ruth & Naomi	Ruth 1-2
20	81 Saul Made King	1 Samuel 9 - 10
21	85 Saul' s Disobedience	1 Samuel 15
22	86 Anointing David	1 Samuel 16
23	87 Goliath	1 Samuel 17
24	99 David Made King	2 Samuel 3 - 4 & 1 Chronicles 11:1-3
26	116 Wisdom of Solomon	1 Kings 3 - 4 & 2 Chronicles 1
26	117 Building the Temple	1 Kings 5 - 9 & 2 Chronicles 2 - 7
27	119 Kingdom Divided	1 Kings 11:26 - 12:24 & 2 Chronicles 10 - 11:4
28	126 Elijah on Mount Horeb	1 Kings 19
29	136 Naaman	2 Kings 5:1-14
30	146 Jonah & the Fish	Jonah 1 - 2
31	166 Daniel' s Decision	Daniel 1:1-16
32	171 Den of Lions	Daniel 6
33	175 Esther Becomes Queen	Esther 1 - 5:8
34	176 Esther Saves Her People	Esther 5:9 - 10:3

35	178 The Birth of Jesus	Matthew 1:18-25, Luke 2:1-38
36	179 Gifts for the King	Matthew 2
37	181 Baptism and Temptation	Matthew 3:1 - 4:11, Mark 1:9-13 Luke 3:21 - 4:13, John 1:19-34
38	187 Sermon on the Mount	Matthew 5 - 7, Luke 6:37-42
39	189 Calling the Twelve	Matthew 10, 12:9-15 Mark 3:13-19, Luke 6:6-16
40	192 Four Soils	Matthew 13:1-23, 31-32, Mark 4:1-32
41	200 Feeding 4,000	Matthew 15:29 - 16:16, Mark 8:1-21, 27-30
42	207 Good Samaritan	Luke 10:25-42
43	209 Lost Sheep, Coin, & Son	Matthew 18:12-14, Luke 15
44	210 Rich Man and Lazarus	Matthew 13:44-46, 25:1-13 Luke 16:19-31
45	215 The Last Supper	Matthew 26:14-30, Mark 14:10-26 Luke 22:1-30, John 13:1-30
46	219 Crucifixion and Burial	Matthew 27:27-61, Mark 15:16-47 Luke 23:26-54, John 19:16-42
47	224 Coming of the Holy Spirit	Acts 2
48	230 Conversion of Saul	Acts 9:1-31
49	239 Singing in Jail	Acts 15:36 - 16:40

50	255 Storm at Sea	Acts 27
51	258 John' s Visions	Revelation 1 & 4 - 5
52	260 New Jerusalem	Revelation 22

<표 3> 매주 성경 이야기 읽기 표

주	이야기	성경본문
1	1. 천지창조 와 2. 아담과 하와	창세기 1 & 창세기 2
2	5. 노아 - 홍수	창세기 6 - 9:17
3	7.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세기 12
4	16. 아브라함의 시험	창세기 22
5	21. 이삭 - 우물 파는 사람	창세기 26:12-33
6	22. 야곱 - 빼앗긴 축복	창세기 27
7	26. 야곱 - 두 진영	창세기 32 - 33
8	28.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창세기 37 & 39
9	30. 요셉이 권력을 잡다	창세기 40 - 41
10	31. 요셉의 가족 상봉	창세기 42 - 46
11	33 모세의 탄생	출애굽기 1 - 2:10
12	35 모세를 부르심	출애굽기 3 - 4:18
13	38. 바로의 재앙	출애굽기 7 - 9
14	43 율법	출애굽기 19 - 20 & 24

15	49 열 두 정탐꾼	민수기 13 - 14
16	55 라합	여호수아 1 - 3:6
17	61 욥의 세 친구	욥기
18	71 삼손과 들릴라	사사기 16
19	75 룻과 나오미	룻기 1-2
20	81 사울이 왕이 됨	사무엘상 9 - 10
21	85 사울의 불순종	사무엘상 15
22	86 다윗에게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
23	87 골리앗	사무엘상 17
24	99 다윗이 왕이 되다	사무엘하 3 - 4 & 역대상 11:1-3
26	116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 - 4 & 역대하 1
26	117 성전 건축	열왕기상 5 - 9 & 역대하 2 - 7
27	119 왕국 분열	열왕기상 11:26 - 12:24 & 역대하 10 - 11:4
28	126 호렙 산의 엘리야	열왕기상 19
29	136 나아만	열왕기하 5:1-14
30	146 요나와 물고기	요나 1 - 2
31	166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 1:1-16
32	171 사자 굴	다니엘 6
33	175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에스더 1 - 5:8
34	176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다	에스더 5:9 - 10:3

35	178 예수의 탄생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2:1-38
36	179 왕에게 바치는 선물	누가복음 2
37	181 세례와 유혹	마태복음 3:1 - 4:11, 마가복음 1:9-13 누가복음 3:21 - 4:13, 요한복음 1:19-34
38	187 산상 수훈	마태복음 5 - 7, 누가복음 6:37-42
39	189 열두 사도를 부르심	마태복음 10, 12:9-15 마가복음 3:13-19, 누가복음 6:6-16
40	192 네 가지 밭	마태복음 13:1-23, 31-32, 마가복음 4:1-32
41	200 사천명 먹이기	마태복음 15:29 - 16:16, 마가복음 8:1-21, 27-30
42	207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42
43	209 길 잃은 양과 주화와 아들	마태복음 18:12-14, 누가복음 15
44	210 부자와 나사로	마태복음 13:44-46, 25:1-13 누가복음 16:19-31
45	215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14-30, 마가복음 14:10-26 누가복음 22:1-30, 요한복음 13:1-30

46	219 십자가 처형과 매장	마태복음 27:27-61, 마가복음 15:16-47 누가복음 23:26-54, 요한복음 19:16-42
47	224 성령 강림	사도행전 2
48	230 사울의 회심	사도행전 9:1-31
49	239 감옥에서 노래하다	사도행전 15:36 - 16:40
50	255 바다의 폭풍	사도행전 27
51	25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 & 4 - 5
52	260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2

성경 읽기 편성표 두 번째 칸의 이야기 제목 앞에 넘버가 들어가 있다. 이는 BibleTelling 에서 제공하는 이야기의 번호이다. 각 가정은 260 편의 모든 이야기를 제공받을 것이다. 각 가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이야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들이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자료를 찾기 용이하기 위해 이야기 넘버를 넣어 놓았다.

BibleTelling 에서 제공하는 성경 요약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자료를 지면상 모두 소개할 수 없어서 첫 주와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2 번과 260 번만을 여기에 소개해 본다.

## 2 Adam and Eve

## Beginnings

### *Genesis 2*

Imagine the earth when it was new—before the plants had come up. In those days, God hadn't yet allowed it to rain on the earth, but caused a mist to come each day to water the land.

During this time, God took some soil and shaped the first man. He breathed into his nostrils, and Adam was alive.

God planted a garden in a place called Eden. It had every kind of tree, and there was a river that flowed out from the garden.

In the middle, there were two special trees. One was called the Tree of Life and the other was calle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d told Adam to take care of the garden. He said, "You may eat from every tree except the one in the middle,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re not to eat from that tree. If you eat from it, you will die!"

God said, "It's not good that man is alone. I'll make a helper that's just right for him." He then brought all the animals to Adam and told him to

name them. So Adam named all the animals, and whatever he named them, that was their name.

As he was naming them, he noticed that all the animals came in pairs, male and female. Yet, as he looked around, he noticed that there wasn't a female for him.

God caused a deep sleep to come down over Adam, and he slept deep and long. Then God opened up the flesh in Adam's side and took a rib. Carefully he closed up the flesh. From that rib, God made a woman.

When Adam awoke, God brought the woman to him. Adam said, "This is bone of my bone, and flesh of my flesh. She'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 This is the reason why a man leaves his parents and forms a relationship with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Adam named his wife Eve because she would become the mother of all people.

## &lt;표 4&gt; 아담과 하와

2. 아담과 하와	태초에
<i>창세기 2장</i>	
<p>새로운 지구가 탄생하기 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식물들이 자라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구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대신 매일 안개가 내려와 땅을 적시던 시절이었습니다.</p> <p>그 동안, 하나님은 흙으로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코에 숨을 불어넣자 아담이 살아났습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고, 정원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p> <p>정원 중앙에는 특별한 나무 두 개(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그 정원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동산에서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p> <p>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에게 딱 맞는 돕는 자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와 이름을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동물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p>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중, 그는 모든 동물들이 남녀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함께할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은 잠을 내리시고, 아담이 깊고 오랫동안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어 새로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깨어나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 주셨습니다. 아담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뼈에서 나왔으며, 내 살로 만들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 &lt;그림 4&gt; New Jerusalem

## 260 New Jerusalem

##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22**Continued from the previous story*

As I was looking at the New Jerusalem,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Living Water. It was crystal clear and flowed out from the throne of God and the Lamb. It flowed down the middle of the main street.

The Tree of Life was on both sides of the street. It had twelve kinds of fruit and produced a crop each month. All the nations went to the tree and found precious healing in its leaves. It was then I realized that never again would anything be cursed.

Servants of God went to his throne and worshiped him. They were allowed to look up and see his face. His name was on their foreheads.

There was no night in the city. So people didn't need sunlight or lamps. The Lord God provided light for them. They ruled forever as if they were kings.

I was looking at all of this when the angel turned to me. He said, "What you're seeing will happen. The Lord gave me this message for you. He said, 'People are to get ready! Because when this happens, it will happen fast. They'll be blessed if they focus on what you have written.'"

At that point, I fell down and worshiped the angel. He was shocked. "Don't do that! I'm just a servant like you. You're to worship God."

He then said, "Listen carefully. What you've written is extremely important. Make sure people

read it. Don't worry about their response. Leave that to God."

Suddenly, I heard Jesus talking to me. He said, "I'm coming, and when I do, it will be fast! I'll give rewards for what each person has done. I am the A and the Z,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of everything—and the end of it all.

"I'll bless those who are prepared for my coming. I'll invite them to the Tree of Life. They can walk right through the gates of the city and come in.

"The wicked aren't welcome. They'll have to stay outside.

"I sent this angel to you. I told him to show you these things. Remember, I'm the Root and the Branch of David. I am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uddenly I hear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Then it was echoed back. "Come!"

Again, I heard, "If you're thirsty, come! Come and drink Living Water."

Oh, my dear friends. Be careful what you do with this book. God will judge you accordingly. Don't make up what's not here. Don't pick and choose what you want to believe. It's all true!

As I wrote this, I suddenly heard Jesus saying, "Something else is true. I'm coming back—and soon."

I said, "Yes, Lord. Come!"

## &lt;표 5&gt; 새 예루살렘

260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22 장	
<i>이전의 스토리와 연결되어서</i>	
<p>내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에게 살아 있는 생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정 같이 맑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주요 거리를 따라 흘렀습니다.</p> <p>생명 나무는 거리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 두 종류의 과일을 맺고 매월 수확을 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나무에 가서 그 잎사귀에서 귀중한 치유를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저주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p> <p>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보좌에 가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었습니다.</p> <p>그 도시에는 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햇빛이나 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빛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왕 같이 영원히 다스렸습니다.</p> <p>내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천사가 내게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빠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쓴 것에 집중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p> <p>그때 나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p>	

그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갈 것이며, 그 날은 속히 올 것이다. 그 때에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리라.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자,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이다.

내 임재에 준비된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을 생명나무에 초대하겠다. 그들은 도시 문을 통해 직접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바깥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천사를 너에게 보내었다. 그에게 이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라고 말했다. 기억해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가지이다. 나는 찬란하고 새벽 별이다." 당신이 쓴 것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대답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두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하고, 이것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오라' 라고 다시 말하시며, "목마르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하시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아. 이 책을 조심히 다루거라. 하나님은 당신을 따로 심판할 것이다. 이 책에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원하는 것만 골라 믿지 말라. 모든 것이 사실이다!

내가 이것을 쓸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게 말씀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사실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며,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 주님. 오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 2.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현대인들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맞벌이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 년도 맞벌이 가정은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이 속한 6 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47.3%, 7-12 세 자녀를 둔 가정은 55.5%, 13-17 세 자녀를 둔 가구는 60.5%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sup>155</sup> 뉴저지연합교회(KCCNJ)에 출석하고 있는 청장년들의 사례를 보아도 전체 80% 이상이 맞벌이 중이다.

바쁜 일상은 청장년층만의 현상이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필자도 이제 청장년층에서 중년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우리 자녀의 일상이 부모인 나와 아내의 일상보다 훨씬 더 분주한 것을 경험해 왔다. 아이들은 아침 7 시에 기상해야 한다. 그리고 8 시까지 등교한다. 오후 3 시 이후에 하교하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스포츠, 클럽, 밴드 등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을 한다. 자녀들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녁 시간부터 아이들은 학교 과제를 해야만 한다. 보통 아이들의 일과가 취침 시간 전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자녀들의 개인 일정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들 역시 학업으로 인해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영래의 진단대로 가정 신앙교육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sup>156</sup>

<sup>155</sup> “맞벌이 3년 만에 증가 전환…1인 취업 가구 첫 400만 돌파,” *동아일보*, (202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21/114033026/1> (Accessed February 20, 2023).

<sup>156</sup> 김영래, “가족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396.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처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탁에서의 모임’이다. 아무리 일상이 바빠도 모두가 끼니를 해결해야만 한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작된 하루의 일상은 저녁이 되어 마무리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모이게 되고 저녁 식사를 위해 함께 자리를 마주한다. 이 시간 이야말로 가족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된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 가정은 이 분주함을 넘어선 신앙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가정사역에 참여하는 가정들은 이 저녁 식탁에서 작은 교회를 실현시키려는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

가정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가 속한 사회, 즉 직장과 학교 등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sup>157</sup>

각 가정은 가족회의를 통해 일주일에 하루를 신앙교육을 위한 식탁 모임을 결정한다. 각 가정은 서로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최고의 하루를 정한다. 한 예로 우리 가정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하였다.

식탁 가정교회 진행은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인도한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연령의 자녀들 모두가 인도자가 될 수 있다. 자녀들 스스로가 이 모임을

<sup>157</sup> 김영한 외 3명, 『요즘 고민이 뭐니?』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8), 65.

인도하면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께 향상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각 순서에 대한 내용과 시간 배분을 아래의 표에 적시했다. 가정에 처한 상황대로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신앙 교육을 통해 가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며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정해진 요일에 만나서 해야 할 신앙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6> 식탁에서의 가정 교회

#	순서	내용	시간
1	기도 및 찬양	식사 전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는 좋은 방법이다.	5 분
2	식사 및 성경 통독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BibleTelling의 성경 내용을 대표자가 읽는다.	40-50 분
3	나눔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실천할 것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나눔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15-20 분
4	통성 기도 및 주기도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통성기도를 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한다.	5 분

### 3. 특별활동

#### 1) 정체성 세우기

미국은 다인종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백인 위주의 사회이다. 인종차별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언어와 사고방식은 같지만 드러나는 외모는 그들이 다른 존재임을 말해준다. 한인 2세대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왔는가(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중국 사람인가? (Are you Chinese),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가? (How can you speak English) 혹은 당신은 영어를 참 잘하는군요. (You speak English very well)이라는 질문과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다. 다른 외모로 인해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입양되어서 미국인 가정에서 자란 입양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한 욕구임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는 분명하고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다를 것이고 또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인적 욕구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KOREAN American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 어떤 이들은 korean-AMERICAN 즉 한인이지만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 어떤 이들은 korean/asian-american 즉 아시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 어떤 이들은 KOREAN-AMERICAN 즉 한국인과 미국인 두 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sup>158</sup> 혹은 한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자신을 오직 AMERICAN 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화적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 미국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의 문화적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돕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 믿음, 관습 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의 문화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둘째, 미국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타인의 다양성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등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미국 내 한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와 성장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의 공존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바른 정체성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것은 ‘이야기’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거를 찾는다. 성경은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시는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야기로 진행된다.

<sup>158</sup> “박길재 목사 세미나 “정체성 형성과 한인 교회 교육”, ” 아멘넷, (2010),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2895&sca=%EC%9D%B4%EB%AF%BC&page=12](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2895&sca=%EC%9D%B4%EB%AF%BC&page=12) (Accessed January 10, 2023).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도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다.<sup>159</sup>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 한인 2 세들에게 한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도울 수 있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에 한국학교가 운영되어 왔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즉 교사 충원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한국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 학교는 한국 문화와 역사 및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한인 2 세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기여해 왔다. 가정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학교 재운영을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한국학교와 연결시켜 줌으로서 계속해서 한인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독려한다.

일대일 멘토링 제도도 실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박길재 목사와 같이 미국 내에서 한인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인생의 선배들이 있다. 그들과 일대일 멘토/멘티로 매칭해 준다. 멘토들은 멘티들의 좋은 본이 되고 스승이 될 수 있다.

## 2) 가족 상담 및 개인 상담

가정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워야 한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가정사역은 자리잡기 불가능해질 수 있다. 가정사역에 참여하기에 대한 동기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더 신앙적으로 살고

---

<sup>159</sup> Ibid.

싶은 바람,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바람, 혹은 가족 간의 무너진 관계를 신앙으로 극복해 보기 위한 바람 등 다양할 수 있다.

관계가 어려워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가정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이 좋은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고, 각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효율적이고 건강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우울증, 불안증, 중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족 상담은 이를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사람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 상담은 이를 해결하고,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160</sup>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기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상담 또한 가정 사역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 상담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와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접근 방법이다. 개인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sup>160</sup> 설은주, 『가정 사역론』, 338.

있게 되면,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안정감을 증진할 수 있다. 개인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이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적인 가족 상담과 개인상담은 가정사역이 각 가정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 교회내에 전문적인 상담가들이 있다. 상담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다. 필자도 사회사업(Social Work)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Coaching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인상담과 코칭으로 도울 수 있다.

### 3) 결혼예비학교/아버지 학교/어머니 학교(마더와이즈)

어떤 일이든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과거보다 현대의 가정은 더 많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설은주 교수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혈연관계가 중요하여 갈등이나 불행에 상관없이 가정은 존속되어 왔다고 말한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가치가 사라지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결혼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었고

이러한 정서적 욕구와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존재할 때 관계를 유지할 의지나 욕구가 약해진다.<sup>161</sup>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지식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때에 결혼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과 문제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예비학교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이나 결혼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이 함께 참여하여,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정사역에서 결혼예비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결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결혼예비학교는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혼은 일생에 걸친 중요한 선택이다. 결혼예비학교는 부부가 서로의 가치관, 목표, 꿈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므로, 대인관계 스킬이 중요하다. 결혼예비학교는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 대인관계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혼 전에 결혼예비학교를 수강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사역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잘 준비되어 하는 결혼만큼이나 부모로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새 생명인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준비되어야 한다.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가 있다.

<sup>161</sup> 설은주, 『가정 사역론』, 182-183.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역할 이해 및 책임감 강화에 기여한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 시키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아버지 학교는 부부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정 내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계를 보며 자연스럽게 가정 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모델이 되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up>162</sup>

어머니 학교도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마더와이즈' 라는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필자의 아내가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이다. 'Motherwise'는 'Mother'와 'Otherwise'의 합성어로 된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다.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 삶의 대부분을 희생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인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들이 겪는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sup>162</sup> 아버지학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두란노아버지학교미주본부*, <https://www.fatherschool.org/> (Accessed March 8, 2023).

배우도록 돕는다. 또한 엄마들이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지원하며,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Motherwise 프로그램' 수업 시간에는 그룹으로 모여 강사의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동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또한 수업 외에도, 엄마들 간의 소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Motherwise 프로그램'은 엄마들의 삶과 자녀의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sup>163</sup>

<그림 5> 마더와이즈 모임



<sup>163</sup> Kardo Ministries, "Motherwise." *Kardo Ministries*, <https://kardo.org/> (Accessed March 8, 2023).

&lt;그림 6&gt; 마더와이즈 수료식



가정사역에 참여하는 가정들에게 아버지학교와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결시킨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 본부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해 왔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이 되었는데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학교 온라인 과정도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지거나 In Person 교육을 요청하는 가정이라면 필자가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료한 후 교회 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아버지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진행한다.

#### 4) 청장년 가정 컨퍼런스

가정사역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가정 구성원들을 제외하면 가정사역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 진행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작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가정의 가정사역은 절대적으로 성서적 근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sup>164</sup> 각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게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각오를 다지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청장년 가정 컨퍼런스가 필요하다.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 가정사역을 하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정보와 조언을 실제 가정에서 적용하고, 이를 다시 공유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가정사역을 하는 가정들이 모여 사역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서로 돕고 해결할 수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가정들이 서로 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sup>164</sup> 설은주, 『가정 사역론』, 548

&lt;표 7&gt; 가정사역을 위한 가정 컨퍼런스

	순서	내용
1	개회식	참여자들을 환영, 컨퍼런스의 목적과 일정 소개
2	찬양 및 예배	함께 예배
3	주제 발표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임  주제-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정에서의 기도와 성경공부,  가정에서의 봉사
4	워크샵	실제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움.  주제 -가정 내 갈등해결, 가정 내 영적인 활동,  가정 내 소통 방법
5	경험 공유	부모, 자녀별로 모여서 가정에서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공유 및 도움 제공
6	패널 토론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패널이 되어 토론.  Q & A 더 나은 가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7	마무리 예배	함께 예배

### 5) 가정별 선교지 연결

현재 뉴저지연합교회(KCCNJ)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파라과이이다.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과 국경을 맞닿고 있다. 수도는 아순시온(Asunción)이며, 국가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와 구아라니어<sup>165</sup>이다. 파라과이는 인구 약 700 만 명으로 남아메리카에서는 중간 규모의 국가이다. 이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양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1811 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림 7> 남미 대륙에 위치한 파라과이<sup>166</sup>



<sup>165</sup> 구아라니(Guarani language)는 파라과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언어(Native language 이다)

<sup>166</sup> "Paraguay,"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q=paraguay&sxsrf=AJOqlzWltx62912jvxn0s\\_Zdhkm\\_x5V4Q:1677214478421&flsig=AK50M\\_UAAAAAY\\_hRHnY0fBB17EuSVGFerQnPrfGwPeyy&uact=5&gs\\_lcp=Cgndnd3Mtd216EAMyEggAEIAEEBQQhwIQsQMQRhD7ATIICCA4QgAAQsQMycAgAEIAEELEDmgQIABBDmgIABCABBCxAzIECAAQAzIICAAQgAAQsQMycAgAEIAEELEDmgIABCABBCxAzILCAAQgAAQsQMgwe6BAGjECc6CwguEMcBENEDEJECOGUIABCRAjOCC4QgAAQsQMqxwEQQM6CgguEMcBEK8BECc6CwguEMcBEK8BEJECOGUILhDHARDRAxBDOgQILhBDOgoIABCxAXCDARBDGcILhCxAXBDOgcILhDUAhBDGcIABCxAXBDOg4ILhCABBCxAXDHARCvAToFCAAQgAAQ6CggAEIAEEBQQhwI6EAgueIAEELEDEMcbEK8BEAo6DwgAEIAEEBQQhwIQRhD7AToFCC4QgAAQ6CggAEIAEELEDEAo6DQgAEIAEELEDEIMBEAPQAFjTGWC2NWgAcAB4AIABkwGIAd4FkgEDNy4xmAEAoAEB&um=1&ie=UTF-8&sa=X&ved=2ahUKEwituPtrq39AhWrKfKfHTakBuUQ\\_AUoAnoECAEQBA](https://www.google.com/maps?q=paraguay&sxsrf=AJOqlzWltx62912jvxn0s_Zdhkm_x5V4Q:1677214478421&flsig=AK50M_UAAAAAY_hRHnY0fBB17EuSVGFerQnPrfGwPeyy&uact=5&gs_lcp=Cgndnd3Mtd216EAMyEggAEIAEEBQQhwIQsQMQRhD7ATIICCA4QgAAQsQMycAgAEIAEELEDmgQIABBDmgIABCABBCxAzIECAAQAzIICAAQgAAQsQMycAgAEIAEELEDmgIABCABBCxAzILCAAQgAAQsQMgwe6BAGjECc6CwguEMcBENEDEJECOGUIABCRAjOCC4QgAAQsQMqxwEQQM6CgguEMcBEK8BECc6CwguEMcBEK8BEJECOGUILhDHARDRAxBDOgQILhBDOgoIABCxAXCDARBDGcILhCxAXBDOgcILhDUAhBDGcIABCxAXBDOg4ILhCABBCxAXDHARCvAToFCAAQgAAQ6CggAEIAEEBQQhwI6EAgueIAEELEDEMcbEK8BEAo6DwgAEIAEEBQQhwIQRhD7AToFCC4QgAAQ6CggAEIAEELEDEAo6DQgAEIAEELEDEIMBEAPQAFjTGWC2NWgAcAB4AIABkwGIAd4FkgEDNy4xmAEAoAEB&um=1&ie=UTF-8&sa=X&ved=2ahUKEwituPtrq39AhWrKfKfHTakBuUQ_AUoAnoECAEQBA) (Accessed January 26, 2023).

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 년 여름에 선교팀을 이끌고 파라과이 선교에 다녀왔다.

<그림 8> 파라과이 현지 선교 현장 1



<그림 9> 파라과이 현지 선교 현장 2



<그림 10>파라과이 센타니(Centani)에 위치한 뱌엘교회 교인들과 선교팀



<그림 11> 선교팀-파라과이 선교 후 아순시온(Asunción) 공항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파라과이에서도 우르브파(Yrybucúá)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림 12> 파라과이 행정구역

## 파라과이 행정구역

17개의 주(Departamento)와 1개 수도지구 (Districto Capital)로 구성



우르부파(Yrybucúá)는 파라과이 동쪽 산페드로(San Pedro)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sup>167</sup> 이 마을은 파라과이 강과 인근 숲 지역의 중요한 생태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우르부파에 위치한 믿음소망학교를 개교하였고 파라과이 감리교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산이스드로 교회, 세군다 새생명교회, 아라쁘아후 교회, 프리메라 새생명 교회, 쉐트로교회, 끼따리니아 교회, 따파빠 교회, 벨엘교회(산타니)를 후원하고 있다. 현지에 2명의 선교사, 최윤영 선교사, 공성애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재 선교하고 있다.

<그림 13> 최윤영 선교사 부부와 벨엘교회



<sup>167</sup> “국가 개황,” *주한파라과이대사관*, <http://www.embaparcorea.org/sub01/sub01.php> (Accessed February 23, 2023).

뉴저지연합교회(KCCNJ)의 파라과이 선교는 크게 재정 지원과 여름 단기선교로 이루어져 왔다. 지원한 금액은 주로 믿음 소망 학교와 선교사 지원금으로 보내진 것이며, 여름 단기선교는 성인팀과 학생팀이 함께 지역의 7개 교회에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목회자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필자가 2019 년도에 “통전적으로 읽는 구약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학교를 일주일간 인도했다.

청장년 가정 사역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선교지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청장년 가정사역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 그와 관련된 네 가지 질문을 드렸다. 다음은 그 질문과 답이다.

<표 8> 질문 1

질문 1. 청장년 가정사역에 적용될 수 있는 현지 선교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윤영 선교사 답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성애 선교사의 답	먼저 제가 지내는 이곳은 젊은이들이 일할 것이 많지가 않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있는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lt;표 9&gt; 질문 2

질문 2. 청장년 가정사역이 현지 교회에 어떤 선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최윤영 선교사 답	가정 매치하여 중보기도 사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년 가정 일대일 매칭이 되어 연락하며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성애 선교사의 답	각 교회에 단기 선교로 오실 경우, 청장년들을 위한 특강이나 레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뿐 아니라 글로벌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 비즈니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lt;표 10&gt; 질문 3

질문 3. 온라인을 통해 선교활동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최윤영 선교사 답	온라인으로는 영어 공부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인터넷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성애 선교사의 답	온라인 수업이 좋지만 와이 파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영어나 컴퓨터 온라인 수업 등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 &lt;표 11&gt; 질문 4

질문 4. 믿음소망학교에 청장년층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p>최윤영 선교사</p> <p>답</p>	<p>부담 안되는 선에서는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보조하는 방식도 좋습니다.</p> <p>하지만 학교 보드멤버가 더 시급합니다.</p> <p>학교 재정이 만만치 않아요.</p> <p>현재 학비로 10 만 과라니(약 14 불) 받고 있는데, 건물 유지 보수하고, 보조교사 월급 나가면 여유가 없습니다.</p> <p>소액이라도 보드 멤버가 좋습니다.</p> <p>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자체 내에서 장학금 지급도 가능하니까요.</p> <p>물질적인 후원 외에도 재능기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p> <p>단기간이라도 음악이나 미술 영어 등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p> <p>혹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농사, 원예, 목축업, 양식 기술, 기술 학교 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p> <p>시골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p> <p>이대로면 그냥 농사짓거나 도시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p> <p>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신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p>
-------------------------	--

<p>공성애 선교사의 답</p>	<p>작년에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학생들 수업에 특별 시간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p> <p>영어 찬양</p> <p>색종이 접기</p> <p>페이스 페인팅</p> <p>재기 차기 등</p> <p>혹은 장기적으로</p> <p>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p> <p>장학금 후원 (한 명 당 한 달에 \$15)</p> <p>특별 수업 강사로 단기 지도</p> <p>예로 태권도 수업</p> <p>음악 수업</p> <p>미술 수업</p> <p>영어 수업</p>
-----------------------	---

선교사님들의 대답을 통해 정리해 보면 청장년 가정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파라과이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온라인을 통해  
현지인들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정사역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파라과이를 방문한다는 것을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적인 측면과 개인적 상황이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선교의 장점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가정사역에 참여하는 각 가정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역을 제안한다.

1. 선교사님들을 통해 현지 가정과 일대일 매칭한다.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갖게 돕는다. 서로를 기억하고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2. 현지인들이 영어 공부에 깊은 관심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영어 레슨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3. 믿음소망학교 학생 중에 등록금 보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 매달 30 불이면 그들의 모든 학업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다.
4. 청장년 월례회를 통해 믿음소망학교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5. 여름 단기선교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하는 가정을 교회 선교팀을 통해 현지의 필요한 사역에 지원하도록 한다.

## 6) 속회 구성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12 구역에 38 개의 속회가 있다.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속회 편성에 있어서 연령층과 거주지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청장년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역에 참여하는 가정들을 한 구역과 한 속으로 배정한다. 일 년에 한번 연합 속회를 진행하면서 청장년 가정사역 컨퍼런스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속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제 VIII 장

### 결 론

#### 1. 요약 및 평가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교회들도 더불어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가 섬기던 뉴저지연합교회(KCCNJ)는 다른 한인 교회와 비교할 때 비교적 연령대가 다양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또한 고령화의 도전에서 피해 갈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 사역을 60 대가 주체가 되어 해 나가고 있다. 청장년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청장년 사역을 맡게 되었다. 청장년 사역을 활성화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필자는 교회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다. 교회는 필자의 리더십을 통해 청장년 사역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했다. 이런 기대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중 기도하며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장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었다. 단기간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이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일이었다. 사역의 결과를 위해 청장년들을 동원하는 열심을 낸 뻔했다. 진정한 사역은 청장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며 교회 사역은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 원칙을 놓칠 뻔했다.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는 청장년들, 무한의 경쟁 속에 던져진 청장년들, 세속의 가치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에서 위태롭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청장년들, 교회의 사역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야 한다.<sup>168</sup>

신앙이 그들의 또 다른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전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탱해 주는 생명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오늘도 일어나 능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때가 있었다. 초대교회가 그리하였다. 수많은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거자씨 같은 영향력이 자라나 세상을 변화시켰다. 초대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보았다.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세워 나갔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신앙은 가르쳐지고 나뉘지고 지켜졌다.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 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들의 삶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가? 신앙 교육은 가정이 아닌 교회에 맡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시작된 초대교회의 가정사역이 지금 청장년들이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연구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각 가정이 가정사역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간의 사역 계획을 세웠다. 청장년 가정들이 이 사역을 통해 각 가정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이다.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가정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

<sup>168</sup> 요한복음 10:10.

참여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이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청장년층을 위한 가정사역 세우기를 위해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가정사역(Family Ministry)에 대한 이론과 성공적인 청장년 사역에 대해 정의했다. 가정사역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법적 가족을 위한 신앙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고 복음이 삶에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임을 강조했다.

둘째로, 이번 연구의 중심이 되는 청장년세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성경속에서 발견되는 세대에 대한 정리와 함께 오늘날 청장년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폈다.

셋째로, 필자가 살고, 연구의 중심이 되는 뉴저지연합교회(KCCNJ)가 미국에 있기에, 미국 내 한인 청장년의 상황과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떠나는 청장년들의 이유들도 정리했다.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로, 청장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성경적 가정의 모습과 가정 교회의 근거와 신앙 교육의 예를 제시하였다.

다섯째로, 청장년 가정사역 세우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동기부여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결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년 동안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자료를 준비하였다.

여섯째로, 가정사역은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가정사역은 각 가정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각 가정이 지속적인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계획하였다. 정체성 세우기, 가족 상담,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사역을 지원한다.

가정사역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 이야기 통독,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그리고 선교 동참이다. 성경 이야기 통독을 위해 BibleTelling에서 제공한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다. 식탁에서의 신앙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의 시간을 정해 모이도록 했다. 식사 및 신앙 교육을 위해 1시간 정도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팬데믹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준비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각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지금 있는 나의 자리가 “땅끝”이 되었다. 세계의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만 했던 지난날과 달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지금 삶의 현장을 선교지와 연결시킬 수 있고, 내 일상의 삶에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뉴저지연합교회(KCCNJ)가 중심으로 하는 파라과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신실한 신앙 가족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선교의 가치에 가장 근접한 사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자료가 제공된다. 넷째,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사역이 지속될 수

있다. 다섯째, 교회의 지도가 필요없이 가정내에서 신앙 훈련을 습관화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가정내 모든 세대들이 신앙적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

필자가 이 연구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앞서 문제 제기에서 언급했듯이 뉴저지연합교회(KCCNJ)에서 부목사로 청장년 사역을 맡았을 때였다.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를 하고 실행에 앞서서, 필자는 뉴저지연합교회(KCCNJ)를 사임하게 되었다. 필자는 미국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에 속해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는 파송제(Appointment System)를 가지고 있다. 감독(Bishop)에 의해 파송된 목사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 필자는 2023년 7월 뉴저지연합교회(KCCNJ)에서 West Grove United Methodist Church로 파송되어 섬기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면으로나마 예측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필자가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뉴저지연합교회(KCCNJ)의 청장년 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약 20여 가정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 중 절반가량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으며 5가정은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5가정들은 나름대로 가정예배 및 기도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가정은 식사 기도 외에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중 몇 가정은 가정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였고, 가정 내에 신앙교육이 정립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적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뉴저지연합교회(KCCNJ)를 넘어서 지역의 청장년들에게 확장될 수 있다. 아버지학교나 마더와이즈 같은 사역에서 가능성을 보게 된다. 각 가정에 가정사역을 세우기 원하는 가정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면 가능한 사역이 된다. 이 사역에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각 가정이 스스로 사역자가 된다.

이 사역의 예상되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역자가 구체적으로 각 가정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꾸준함이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1년간 지속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요구된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이 사역이 습관과 일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정의 리더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며,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한다.

그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사역을 지속하게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심방과 상담, 기도를 통해서 가정사역의 열정이 지속되도록 협조한다. 또 다른 한계는 1년 후에는 어떻게 가정사역을 이뤄가도록 도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정사역은 1년이 유효한 것이 아니다. 평생 가야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장기 사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년이 지난 가정들에게 어떻게 평생의 이 사역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2. 결론과 제언

교회의 다른 사역들도 모두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교회의 미래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젊은 층에 대한 사역이다. 특별히 청장년층에 대한 사역은 교회의 미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장년들은 앞으로 40-50년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그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려 받은 교회 사역을 또 다른 반세기를 이끌어갈 재목들이 된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 세속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 것으로 사역의 성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제자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울과 같은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간 것처럼, 진정으로 헌신된 소수를 세울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다.

아무쪼록 필자가 제시하는 것은 미약한 연구 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미래의 주역인 청장년층을 주님의 사역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 각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외국어 서적

- Arnett, Jeffrey Jensen.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Dawkins, Richard. *The God Delusion*. New York: Bantam Press, 2006.
- Deuze, Mark, *Media Work*. Cambridge: Polity Press, 2013.
- Garland, Diana R. *Family Minist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2, 113.
- Herring, Hayim. *Connecting Generations: Bridging the Boomer, Gen X, and Millennial Div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 Irving, Paul. *The Upside of Aging*. Hoboken: Milken Institute, 2014, 34.
- Kim, Ilpyong J. *Korean-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 Elizabeth: Holym International Corp, 2004.
- Kinnaman, David. *You Lost Me. Why Young Christians Are Leaving the Church...and Rethinking Faith*. Grand Rapids: Baker, 2011.
- Lerner, Richard M. and Steinberg, Laurence.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3r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9.
- Mabry, John R. *Faithful Generations: Effective Ministry across Generational Lines*. New York: Morehouse Publishing, 2013.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Parenting Matters: Supporting Parents of Children Ages 0-8*.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6.
- Okesson, Greg. *A Public Missi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 Renfro, Paul et al.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3 Views*. 2nd Edition. Timothy Jones. Nashville: B&H Academic, 2019.
- Schmidt, Martin. trans. Norman P. Goldhawk.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 Sinek, Simon. *Start with Why: How Great Leaders Inspire Everyone to Take Action*. New York: Penguin, 2009.
- Smith, James K.A. *How (Not) to Be Secular*. 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26.
- Wright, C.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Nottingham: IVP, 2004.
- Young, Jacob Yongseok. *Korean, Asian, or American?*.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2.

### 번역 서적

- Bisset, Tom. 『왜 믿는 집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전순영 역. 서울: 나침반, 1999.
- Daman, Glenn. 『중,소형 교회 성공리더쉽』 김기현,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Jones, Rick. 『젊은이들이 겪는 영적 전쟁』 한승용 역. 서울: 필그림, 2003.
- Maxwell, John. 『당신안에 잠재된 리더쉽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Platte, Eberhard.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정 역. 서울: 아가페 북스, 2012.
- Spurgeon, Charles. 『목회자들을 위하여』 박범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Tuttle, Robert G.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신학』 김석천 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1.

### 한국어 서적

- 김영선. 『사진으로 따라가는 존 웨슬리』 서울: 밀알기획, 2007.
- 김영한 외 3명. 『요즘 고민이 뭐니?』 용인시: 도서출판 목양, 2018.
- 김형식. 『좀비, 해방의 괴물-팬데믹, 종말,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철학적 사유』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2.
-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 이종필.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원리편』 파주: 넥서스, 1992, 10.
- 이후정 외 19명.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성경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20.
- 최윤식, 최현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호성기. 『선교의 제 4 물결을 타라』 서울: 국민일보, 2020.

#### 논문, 잡지, 정기 간행물

- Cursaru, Andrei. "Main Causes of Population Aging and its Consequences o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The University of Warwick*. (2019): 2-4.
- Jeung, Russell. "Anti-Asian Racism and COVID-19: How to Stop the Virus of Hate." *Health Education & Behavior* 48, no. 5, (2021): 581-589.
- Kammer, Jerry. "The Hart-Celler immigration act of 1965."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2015): 1-2.
- Kjesbo, Denise M, and Cha, Lou Y. "Family Ministry: Past, Present, Future." *Christian Educational Journal*. (2020): 489-490.
- Ozment, Steven. "Reinventing Family Life." *Christianity Today*. (1993): 34-40.
- UNFPA, "21 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 Help Age International*. (2012): 3.
- 김보경 외 2.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에 관한 인식과 대책."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4, (2011): 204.
- 김승희, 김선미. "맞벌이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3): 355.
- 김영래. "가족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 (2016): 395-396.
-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52-153.

- 김순은, 전소연.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행정논총」 제 53 권 제 2 호, (2015): 70.
- 박상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 논총」 40. (2014): 77.
- 신상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한병원협회지 V.34 No.5, (2005): 4-6.
- 신승범, 이종민.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66. (2021): 274.
-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51-52.
- 이은경. “ESG 담론과 MZ 세대.” 「강단과 목회」 (2023): 14-15.

## 웹사이트

- Ackley, Steven. “What is Family Ministry.” *Ministry Grid*. (2019), <https://leadership.lifeway.com/2019/04/03/what-is-family-ministry/#:~:text=Family%20ministry%20aims%20to%20develop%20disciple%20making%20disciples.&text=The%20aim%20is%20to%20grow,doing%20the%20same%20for%20others>(Accessed October 10. 2022).
- BibleTelling. “All the Story of the Bible.” *BibleTelling.com*. <https://www.bibletelling.org/product/all-the-stories-of-the-bible/> (Accessed October 21. 2022).
- Church of England. "Families & Households in the Old Testament - A Brief Overview." *Church of England*. [https://www.churchofengland.org/sites/default/files/2022-06/families\\_households\\_in\\_the\\_old\\_testament\\_-\\_a\\_brief\\_overview.pdf](https://www.churchofengland.org/sites/default/files/2022-06/families_households_in_the_old_testament_-_a_brief_overview.pdf) (Accessed June 2022).
- Deffinbaugh, Bob. “2. The New Testament Church—Its Ministry.” *Bible.org*. <https://bible.org/seriespage/new-testament-church%E2%80%94its-ministry> (Accessed March 9, 2023).
- Doyle-Nelson, Theresa. “House Churches in the New Testament.” *Franciscan media*. (2018). <https://www.franciscanmedia.org/st-anthony-messenger/house-churches-in-the-new-testament/> (Accessed October 20. 2022).
- Dronen, Christina. “11 Bible Verses About Parenting That Will Help You Be Better.” *Gentle Christian Parenting*. (2023).

<https://gentlechristianparenting.com/biblical-role-of-parents/> (Accessed 2023.3.9).

Earls, Aaron. "Average U.S. Pastor and Churchgoer Grow Older." *Lifeway Research*. (2021). <https://research.lifeway.com/2021/11/01/americas-pastors-and-churchgoers-are-getting-older/#:~:text=Older%20pastors,in%20the%20past%20five%20years> (Accessed January 23. 2023).

Elflein, John. "Drug use in the U.S. - Statistics & Facts." *Statista*.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0804/us-lifetime-prevalence-drug-use-grades-8-10-12-by-drug/> (Accessed February 5. 2023).

Elflein, John. "Lifetime prevalence of drug use within grades 8, 10, and 12 in the U.S.2021, by drug." *Statista*.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0804/us-lifetime-prevalence-drug-use-grades-8-10-12-by-drug/> (Accessed February 5. 2023).

Esterline, Cecilia and Batalova, Jeanne.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2).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 (Accessed January 23. 2023).

Gabbatt, Adam. "Losing their religion: why US churches are on the decline." *The Guardian*. (2023).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jan/22/us-churches-closing-religion-covid-christianity> (Accessed March 1. 2023).

Hampshire, Robert. "What Is the Biblical Definition of Marriage?." *Christianity.com*. (2020). <https://www.christianity.com/wiki/christian-life/what-is-the-biblical-definition-of-marriage.html> (Accessed November 14. 2022).

Jackson, Griffin P. "The Top Reasons Young People Drop Out of Church." *Christianity Today*. (2019). <https://www.christianitytoday.com/news/2019/january/church-drop-out-college-young-adults-hiatus-lifeway-survey.html> (Accessed March 1. 2023).

Kaliszewski, Michael. "Alcohol and Drug Abuse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Addiction Centers*. (2022). <https://americanaddictioncenters.org/rehab-guide/addiction-statistics/asian-americans> (Accessed February 5. 2023).

- Kandil, Gaitlin Yoshiko. "Asian Americans Report over 650 racist acts over last week, new data says." *NBC News*. (2020)  
<https://www.nbcnews.com/news/asian-america/asian-americans-report-nearly-500-racist-acts-over-last-week-n1169821> (Accessed on March 5, 2023).
- Kardo Ministries. "Motherwise." *Kardo Ministries*. <https://kardo.org/>  
 (Accessed March 8. 2023).
- Kilgore, Albert. "GOD' S HEART FOR FAMILY DISCIPLESHIP IN THE OT." *Mission Bible Church*. <https://www.missionbible.org/the-latest/gods-heart-for-family-discipleship-in-the-ot> (Accessed March 9, 2023).
- Koster, Steven. "Christian Parenting at the Dinner Table." *Family Fire*. (2014). <https://familyfire.com/devotions/christian-parenting-at-the-dinner-table> (Accessed January 15. 2022).
- Leon, Adrian De. "The long history of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in the U.S." *PBS News Hour*. (2020). <https://www.pbs.org/newshour/nation/the-long-history-of-racism-against-asian-americans-in-the-u-s> (Accessed October 22. 2023).
- Lisa, Andrew.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amily Ministry." *Charisma Leader*. (2014). <https://www.charismaleader.com/life/310-family-life/20778-stressing-the-importance-of-family-ministry> (Accessed March 4. 2023).
- Main, Douglas. "Who Are the Millennials?." *Live Science*. (2017).  
<https://www.livescience.com/38061-millennials-generation-y.html>  
 (Accessed March 9. 2023).
- Mao, Bincheng. "Anti-Asian racism is on the rise. Here' s what we can do to combat it." *World Economic Forum*. (2021).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6/anti-asian-racism-what-we-can-do-to-combat-it/> (Accessed October 21. 2022).
- NCSL. "State Medical Cannabis Law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2). <https://www.ncsl.org/research/health/state-medical-marijuana-laws.aspx> (Accessed February 26. 2023).
- Pew Research Center. "In U.S., decline of Christianity continues at a rapid pace." *Pew Research Center*. (2019).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9/10/17/in-u-s-decline-of-christianity-continues-at-rapid-pace/> (Accessed March 9. 2023).

- Ramachandran, Vignesh. "What you can do to fight violence and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PBS News Hour*. (2021).  
<https://www.pbs.org/newshour/nation/what-you-can-do-to-fight-violence-and-racism-against-asian-americans> (Accessed October 22. 2022).
- Ritenbaugh, Richard T. "Husband-Wife Relationships." *Bible Tools*.  
<https://www.bibletools.org/index.cfm/fuseaction/Topical.show/RTD/cgg/ID/2195/Husband-Wife-Relationships.htm> (Accessed March 9. 2023).
- Roberts, Susha. "10 Lessons from Jesus' Table." *Wycliffe*.  
<https://www.wycliffe.org/feast/10-lessons-from-jesus-table> (Accessed March 9. 2023).
- Sales, Ben. "The Pew study cheat sheet: 10 key conclusions from the new survey of American Jews." *Jewish Telegraphic Agency*. (2021).  
<https://www.jta.org/2021/05/11/united-states/the-pew-study-cheat-sheet-10-key-conclusions-from-the-new-survey-of-american-jews> (Accessed November 2. 2022).
- SB 리치퍼슨. "저출산 관련주..한국 출산율 0.78..출산율 10년째 OECD '꼴찌' ." *SB 리치퍼널리*. (2023). <https://sb.pe.kr/8461> (Accessed January 22. 2023).
- Sunday, David. "Embracing the Biblical Tension Between Family and Church Ministry." *The Gospel Coalition*. (2012).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embracing-the-biblical-tension-between-family-and-church-ministry/> (Accessed October 12. 2022).
- The Investopedia Team. "Baby Boomer: Definition, Years, Date Range, Retirement & Preparation." Reviewed by Caitlin Clarke. *Investopedia*, (2022). [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aby\\_boomer.asp](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aby_boomer.asp) (Accessed March 9. 2023).
- Yam, Kimmy. "There were 3,800 anti-Asian racist incidents, mostly against women in past year." *NBC News*. (2021).  
<https://www.nbcnews.com/news/asian-america/there-were-3-800-anti-asian-racist-incident-mostly-against-n1261257> (Accessed on March 5. 2023).
- 김경미.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The JoongAng*. (20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4291#home> (Accessed January 22. 2023).
-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1) 연재를 시작하며." *국민일보*. (2012).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404521> (October 10. 5. 2022).

- 김응선. “연합감리교회 소수민족 지도자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발언을 규탄하다.” *연합감리교뉴스*. (2020).  
<https://www.umnews.org/ko/news/ethnic-minority-leaders-denounce-trumps-chinese-virus> (Accessed October 22. 2022).
- 박민균. “교회 떠난 청년들 도전적 질문에 합리적 대답 제시해야 한다.” *기독신문*. (2019).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50> (Accessed October 22. 2022).
- 박혜정.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이들과 소통하려면.” *Daily Good News*. (2019).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28> (Accessed October 22. 2022).
- 박철현.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시사 IN*. (20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Accessed January 22. 2023).
- 손민지. “[MZ 세대 마켓 보고서] 2030 은 색다른 재미를 추구한다.” *글로벌이코노믹*. (2021). [https://news.g-eneews.com/article/Distribution/2021/11/202111221824292695bc88014e31\\_1?md=20211124085826\\_U](https://news.g-eneews.com/article/Distribution/2021/11/202111221824292695bc88014e31_1?md=20211124085826_U) (Accessed January 9, 2023).
- 아버지학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두란노아버지학교미주본부*.  
<https://www.fatherschool.org/> (Accessed March 8. 2023).
- 장수아. “한인 마약 중독 빨간불...팬데믹 기간 고립감 영향.” *미주중앙일보*. (2022).  
<https://news.koreadaily.com/2022/01/30/society/generalsociety/20220130212256482.html> (Accessed February 5. 2023).
- 한기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 *중부매일*. (2023).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158> (Accessed February 17).
- 최효정. “고용개선? 청년실업률은 3 개월 연속 10%대.” *조선비즈*. (2021).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2/QSUST3REFZAGXIWWF5UCYWXRQ/](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2/QSUST3REFZAGXIWWF5UCYWXRQ/) (Accessed March 4. 2023).
- “MZ 세대 특징과 성향.” *Tistory*. (2021). <https://119-119.tistory.com/entry/MZ%EC%84%B8%EB%8C%80-%ED%8A%B9%EC%A7%95%EA%B3%BC-%EC%84%B1%ED%96%A5> (Accessed January 9, 2023).

“Paraguay.”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q=paraguay&sxsrf=AJOqlzW1tx62912jvxhN0s\\_Zdhkm\\_x5V4Q:1677214478421&ifl sig=AK50M\\_UAAAAAY\\_hRHnY0fBB17EuSVGFerQnPrfGwPeyy&uact=5&gs\\_lcp=Cgdnd3Mt d216EAMyEggAEIAEEBQQhwIQsQMQRhD7ATI ICC4QgAQQsQMyCAgAEIAEELEDmGqIABBDmGgIABCABBCxAzIECAAQAz IICAAQgAQQsQMyCAgAEIAEELEDmGgIABCABBCxAzILCAAQgAQQsQMgE6BAgjECc6CwguEMcBENEDEJECOGUIABCRAj oOCC4QgAQQsQMgxEQOQM6CgguEMcBEK8BEC6CwguEMcBEK8BEJECOGI LhDHARDRAxBDogQILhBDogIABCxAXCDARBDogcILhCxAxBDOgcILhDUAhBDogcIABCxAXBDog4ILhCABBCxAXDHARCvAToFCAAQgAQ6CggAEIAEEBQQhwI6EAguEIAEELEDEMcbEK8BEAo6DwgAEIAEEBQQhwIQRhD7AToFCC4QgAQ6CggAEIAEELEDEAo6DQgAEIAEELEDEIMBEApQAFjTGWC2NWgAcAB4AIABkwGIAd4FkgEDNy4xmAEAoAEB&um=1&ie=UTF-8&sa=X&ved=2ahUKEwituPt r q39AhWrKfKfHTakBuUQ\\_AUoAnoECAEQBA](https://www.google.com/maps?q=paraguay&sxsrf=AJOqlzW1tx62912jvxhN0s_Zdhkm_x5V4Q:1677214478421&ifl sig=AK50M_UAAAAAY_hRHnY0fBB17EuSVGFerQnPrfGwPeyy&uact=5&gs_lcp=Cgdnd3Mt d216EAMyEggAEIAEEBQQhwIQsQMQRhD7ATI ICC4QgAQQsQMyCAgAEIAEELEDmGqIABBDmGgIABCABBCxAzIECAAQAz IICAAQgAQQsQMyCAgAEIAEELEDmGgIABCABBCxAzILCAAQgAQQsQMgE6BAgjECc6CwguEMcBENEDEJECOGUIABCRAj oOCC4QgAQQsQMgxEQOQM6CgguEMcBEK8BEC6CwguEMcBEK8BEJECOGI LhDHARDRAxBDogQILhBDogIABCxAXCDARBDogcILhCxAxBDOgcILhDUAhBDogcIABCxAXBDog4ILhCABBCxAXDHARCvAToFCAAQgAQ6CggAEIAEEBQQhwI6EAguEIAEELEDEMcbEK8BEAo6DwgAEIAEEBQQhwIQRhD7AToFCC4QgAQ6CggAEIAEELEDEAo6DQgAEIAEELEDEIMBEApQAFjTGWC2NWgAcAB4AIABkwGIAd4FkgEDNy4xmAEAoAEB&um=1&ie=UTF-8&sa=X&ved=2ahUKEwituPt r q39AhWrKfKfHTakBuUQ_AUoAnoECAEQBA) (Accessed January 26. 2023).

“US drug overdose deaths remain at near record highs, CDC says.” 11 News.

(2022). <https://www.cnn.com/2022/01/12/health/drug-overdose-deaths-cdc-report/index.html> (Accessed February 26. 2023).

“국가 개황.” *주한파라과이대사관*. <http://www.embaparcorea.org/sub01/sub01.php> (Accessed February 23. 2023).

“국민 91.8% 인터넷 이용.” *동아일보*. (202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226/99884384/1> (October 10. 5. 2022).

“맞벌이 3년 만에 증가 전환...1인 취업 가구 첫 400만 돌파.” *동아일보*. (202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21/114033026/1> (Accessed February 20. 2023).

“미국교회가 고령화 되고 있다.” *아멘넷*. (2021).

[https://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345](https://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345) (Accessed January 23. 2023).

“청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B2%AD%EB%85%84> (Accessed September 5. 2022).

“장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E%A5%EB%85%84> (Accessed September 5. 2022).

“박길재 목사 세미나 “정체성 형성과 한인 교회 교육” .” *아멘넷*. (2010).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2895&sca=%EC%9D%B4%EB%AF%BC&page=12](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2895&sca=%EC%9D%B4%EB%AF%BC&page=12) (Accessed January 10. 2023).

“사설- 청년들 헬조선 이어 삼포 넘어 이제는 다포세대自嘲 .” *경북탐 뉴스*.  
(2021).

[https://www.ktn1.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99#:~:text=%EC%82%BC%ED%8F%AC%EC%84%B8%EB%8C%80\(%E4%B8%89%E6%8A%9B%E4%B8%96%E4%BB%A3,%EC%A0%8A%EC%9D%80%20%EC%B2%AD%EB%85%84%EC%84%B8%EB%8C%80%EB%A5%BC%20%EB%A7%90%ED%95%9C%EB%8B%A4](https://www.ktn1.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99#:~:text=%EC%82%BC%ED%8F%AC%EC%84%B8%EB%8C%80(%E4%B8%89%E6%8A%9B%E4%B8%96%E4%BB%A3,%EC%A0%8A%EC%9D%80%20%EC%B2%AD%EB%85%84%EC%84%B8%EB%8C%80%EB%A5%BC%20%EB%A7%90%ED%95%9C%EB%8B%A4) (Accessed September 10. 2022).

“청년인구.” *통계청*.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iemInputNo=0000222007267>  
(Accessed September 5. 2022).

##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ean Seokman Park

Place and Date of Birth: Dangjin, South Korea, July 04, 1974

Parent`s Names: Young Kyu Park / Han Boon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Kongju High School</b> 2 Gongjugodam-gil, Gongju-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Diploma	Feb 9, 1993
Collegiate: <b>Suncheonhyang University</b> 22 Suncheonhyang-ro, S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B.S	Feb 18, 2000
Graduate: <b>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31 Naengcheon-dong, Seodaemun-gu, Seoul, South Korea	M.div	Feb 18, 2003
Graduate: <b>Drew University</b> 36 Madison Ave, Madison, NJ, the USA	M.div	May 17, 2008
Graduate: <b>Monmouth University</b> 400 Cedar Ave, West Long Branch, NJ, the USA	MSW	May 20, 2009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an Seokman Park

Name typed

February 21, 2023

Date